

다

문화유산을



이야기하다, 담다

VOL. **01** | **AUTUMN** 2022
QUARTERLY MAGAZINE





문화유산 담

발행일 2022.09.01.

발행인 여인한 발행처 문화재수리협회 편집위원 강석목 박동수 류재선 한승 편집 이솔지 유서영 양선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3 로얄타워 7층 전화 02 584 1866

홈페이지 kcpra.or.kr 이메일 kcpra@naver.com

기획·디자인 감커뮤니티 02 6713 0999

* 외부 필자에 의해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문화재수리협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Part. 01

인사말 · 축사

문화재수리협회장 인사말	03
문화재청장 축사	04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장 축사	05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장 축사	

Part. 02

법령 정보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감리원) 전문교육 개정	07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중 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 변경 운영	10
2022년 표준품셈 개정	11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의무화	12
법령 Q & A	14

Part. 03

문화유산 수리의 역사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 초기의 역사와 전문인력 양성	18
-----------------------------	----

Part. 04

문화유산 특별기고

새로운 문화재수리 입찰제도 운영결과에 대한 소고	25
진화하는 유산의 개념과 보존의 방향	28

Part. 05

문화유산 수리 이야기

경주 월성해자 정비·재현 공사	32
부산 송정역 복원설계	40
고구려의 유적 아차산 일대 보루군	45

Part. 06

문화유산 서가

우리 옛건축에 담긴 표정들, 문화유산 다이어리	48
---------------------------	----

Part. 07

문화유산 산책

문화재수리로 이어진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 90년 만에 열려	50
---	----

Part. 08

협회 공모

문화재수리협회 슬로건 공모	5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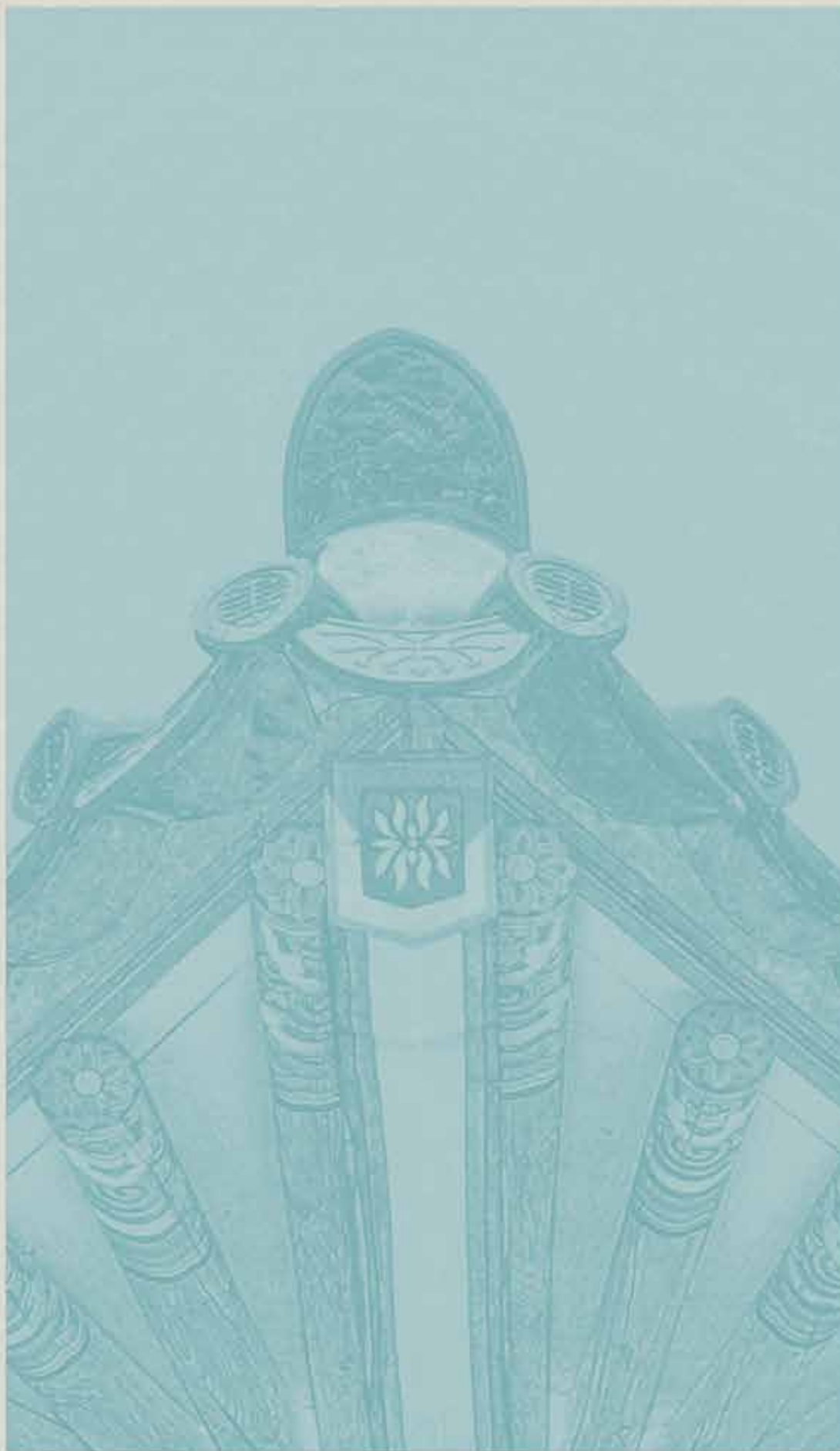
Part. 09

협회 소식

문화재수리란 / 협회안내	56
공제조합 안내	58
문화재수리협회 회원리스트	61
회원가입안내	65

Part. 01

인사말·축사



문화재수리협회장 인사말 | 03

문화재청장 / 한국문화재수리기술자협회장 /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장 축사 | 04

인사말

‘문화유산 담’ 창간호를 발간하면서 ...



문화재수리협회
회장 | 여인환

문화재수리협회는 문화재 수리의 품질 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화재수리업의 권익향상과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밖으로는 문화재 수리 분야를 알려 기록하고, 안으로는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그간 숙고해왔던 협회지 <문화유산 담>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유산 담>은 '문화유산을 담다, 문화유산을 이야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담(談)은 중의적인 의미로서 문화재수리와 관련해 많은 것을 담고 이야기하며, 오늘을 보고 미래를 향한 토대가 되고자 합니다. 그간 협회에서는 문화재수리와 관련해 등록요건 완화, 자격심사, 품셈 등 합리적인 수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아울러 공제회 설립, 문화재수리종사자교육 등 회원들의 권익과 역량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수리를 방해하는 사안과 난제들을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수리를 둘러싸고 엄중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과 제도가 발전하고 있는 문화재 수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수리는 오롯이 문화재 관련 종사자들의 손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경제적 논리와 전문성이 없는 타 분야 종사자들에게 맡겨진다면 그간 애써 지켜온 찬란한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반문화적 행위이며, 계승해야 할 후손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환경에 맞춰 문화재수리와 관련한 제한된 업역이 확대되고, 법과 제도는 진화해야 합니다. 이에 문화재수리는 '문화재 관련 종사자들의 손으로'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문화유산 담>이 나오기까지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창간호를 위해 기고해주신 회원분들과 기획과 제작에 애써준 협회 임원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화재수리협회의 '문화유산 담' 창간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문화재청
청장 | 최응천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을 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문화재수리업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문화재수리협회의 <문화유산 담> 발간 소식을 들으니 매우 반가울 따름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의 힘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지금, 문화의 뿌리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의 미래가치와 영향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이 현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로 전승하기 위함에 있어, 문화재수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수리는 전통과 현대기술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 문화 발전의 근간을 지키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재수리업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는 문화재수리협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에 창간하는 <문화유산 담>이 국민들에게 문화재수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문화재수리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문화유산의 올바른 계승을 위한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항상 문화재수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협회 회원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리며, 문화재수리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권익 보호와 기술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인환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임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문화유산 담> 창간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문화재수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문화유산 담'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속적인 성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문화재수리협회는 문화재 분야 산업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및 발전, 문화재수리시장 확대와 진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지난 2011년 설립됐습니다. 이후 2015년, 문화재청 특수법인으로 창립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전임 김상임 회장님에 이어 올해 여인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이 새롭게 구성되어 다양한 과제와 사업추진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재 보존 및 수리를 위해 1960년대에는 정부 조직 및 기술자와 기능자 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였습니다. 1970년대는 문화재수리회사 설립에 필요한 기틀 마련과 문화재수리면허 제도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당시 문화재수리업 면허는 기존의 종합건설회사의 면허 기준에서 정하는 기술자와 기능자를 등록해 취득하는 제도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체계였습니다. 현재는 문화재청 법령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종합수리업과 전문수리업, 실측설계업, 감리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수리의 시작은 1961년, 문교부의 문화재관리국이 설치된 시점으로 볼 수 있으며, 1962년은 문화재보호법 제정 그리고 다음해인 1963년에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기술자와 기능자 자격제도를 갖추면서 체계화됐습니다. 1963년, 63건의 문화재 보수공사를 시작으로 60년 동안 수리 체계에는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5년에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해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활동과 자율성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해 업계 중심의 특수법인인 '문화재수리협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수리협회 설립에 대한 문화재수리업계가 바라는 제도개선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과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전통건축수리기술훈재단이 수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 타 산업 분야에서는 폐지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문화재보호구역 내 절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의 일반건설시장에 대한 개방 등 문화재수리시장을 위축하고 축소하는 제도를 저지하지 못한 점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협회 임원진의 지혜와 강직함이 발휘되어야 하고, 한국문화재수리기술회사는 적극적인 자원과 협조를 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재수리협회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수리 분야 12개 전문 종목의 산업을 대표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소외되고 낙후된 업종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국민적 공감대와 강력한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문화재수리산업은 타 산업과 비교하면 소규모 산업의 일자리를 이루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특별한 분야임을 널리 알려야 할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수리업은 장인과 기술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중심으로 장인과 기술자의 사회적 회생과 공공에 필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 대해 홍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문화유산 담' 창간을 우리 문화재 장인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재수리협회가 발족한지도 11년이란 성상의 세월이 흘러 현재는 명실공히 최고의 문화재 특수법인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역대 이사장 및 회원분들의 열정으로 문화재수리 분야의 선진화 및 과학화에 괄목할만한 비약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문화재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문화재수리 실적 신고 및 문화재수리 경력 실적 신고, 문화재수리 감리보고서 등록 등 그간 문화재계의 현안 사항을 해결했습니다. 또 각종 문화재 정보 및 자료의 시스템화 및 DB화 등 문화재수리 분야의 투명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유산 담>을 창간함으로써 문화재장인과 수리기술자, 수리업체와의 정보교환 및 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기법에 대한 고증과 고문헌 기록의 수록, 문화재 수리기술의 진흥 및 보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온전한 문화재 보존과 전승, 장인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문화유산 담>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인환 회장님을 비롯한 문화재수리 종사자 여러분의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혼신을 다해 주시는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문화재수리기술회
회장 | 고주환



사단법인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이사장 | 홍경선

Part. 02

법령 정보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감리원) 전문교육 개정 | 07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중 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 변경 운영 | 10

2022년 표준품셈 개정 | 11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의무화 | 12

법령 Q & A | 14

주요정책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감리원) 전문교육 개정 2021.11.30

(1)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모두 전문교육 이수 대상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등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 외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도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정기교육을 이수해야하는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정기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2) 전문교육의 구분 (신규교육·정기교육) 법 제28조

전문교육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여, 그 교육 시간을 각각 32시간과 64시간으로 변경되었다.

» 신규교육 : 문화재수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32시간

» 정기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64시간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

(3) 전문교육의 방법 다양화 [별표 11의2 신설]

전문교육의 방법으로 집합교육 외에 이러닝교육과 자율교육을 신설하여 비대면으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석박사 학위 취득, 논문 게재 등 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활동도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문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개정되었다.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의2 (전문교육의 내용 및 방법)

전문교육 주요 개선사항 요약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교육방법	집합교육	집합교육, 이러닝교육, 자율교육 *교육시간의 50/100이상은 집합교육으로 이수
교육대상	업체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 참여 문화재수리기술자
교육시간	32시간	신규교육 32시간 › 자격증 취득후 1년 이내 정기교육 64시간 › 신규교육 후 5년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감리원)
전문교육 개정 2021.11.30

참고 1

[별표 11의2]
전문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1. 전문교육의 내용

-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양 관련 법령·제도 등에 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 나.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2. 전문교육의 방법

- 가. 집합교육 : 문화재청장이 교육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공고하는 교육에 출석하고 개설된 강의 과정을 이수
- 나. 이러닝교육 :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를 통해 강의 과정이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과정을 단방향으로 수강
- 다. 자율교육 : 해당 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국내외 석사·박사 학위 취득
 - 2) 논문 게재, 저술, 기고
 - 3) 국내외 학회·학술단체 등이 실시하는 학술발표대회·교육·연수·토론회 등에서의 주제발표·토론·강연
 - 4) 관련 협회·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 설명회, 청문회 등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활동에 참여

비고

- 1.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교육을 이수하여 합산한 시간은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최대 100분의 50까지로 한정하여 인정된다.
- 2. 제2호다목의 자율교육의 종류별 인정 대상·시간·방법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 2

문화재청고시 제2022-28호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 대상

1. 인정대상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보유한 자격 분야와 관련하여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수행한 다음의 활동

구분	교육, 학습내용	인정시간	비고
1. 학위 취득	석·박사 학위 취득	32시간	
	가. SCI급(후보등재지 포함)	15시간/편당	
	나. KCI급(후보등재지 포함)	10시간/편당	*공동게재 : 1/N
2. 논문 게재, 저술, 기고	다. 국내·외 비등재지	5시간/편당	
	라. 직무관련 전문서적 저술·출간	32시간/권당	*공동저술 : 1/N
	마. 각종 기고문, 칼럼 등	3시간/건당	
3. 주제발표, 토론, 강연	가. 주제발표	5시간/건당	*공동발표 : 1/N
	나. 토론	3시간/건당	
	다. 강연	강연시간/건당	대학 등에서의 강의는 불인정
4. 설명회 등 참여	설명회, 청문회, 공청회, 학술대회, 교육 등	참여시간/건당	

※ 제4호의 '설명회 등 참여'의 인정 대상과 시간은 경력관리수탁기관(문화재수리협회)이 설명회 등의 주치기관을 통해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한정함.

2. 인정절차

- 교육 대상자인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교육실적 직접 신고
 - ※ 신고 내용별 증빙서류 등 신고방법 및 인정절차의 세부사항은 경력관리수탁기관(문화재수리협회)이 따로 정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www.chis.or.kr)을 통해 안내함.

3. 재검토 기한

-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중
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 변경 운영 2022.02.09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개정 (2021.11.30)으로 전문교육 이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정 전문교육을 이행한 문화재수리 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에 대한 신인도(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시 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된다.

(현행) '최근 5년간 전문교육 이수'

(변경) '법정 전문교육 이수'

(변경운영시기) 2022.2.9.(수)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중 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 항목 개정 전까지

계약예규 신인도심사-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 사례



2022년
표준품셈 2022.0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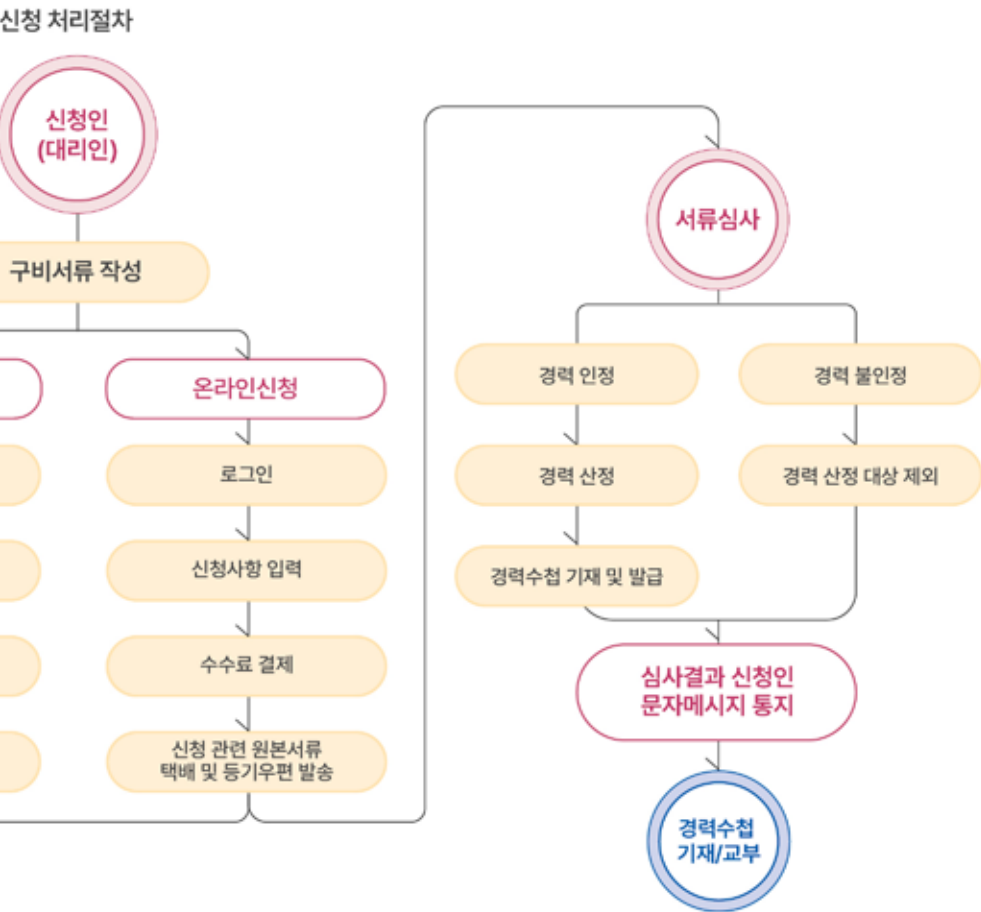
- 항목 신설 : 4공종 19항목(목공사 2, 미장공사 3, 단청공사 12, 기타공사 2)
- 항목 조정 : 4공종 8항목(목공사 1, 지붕공사 5, 미장공사 1, 온돌공사 1)
- 오기 수정 : 1공종 1항목(석공사 1)

공종	구분	항목명	변동사항	개정사유
목공사	조정	4-28 기동동바리아움 4-28-1 주먹장이음(원기동) 4-28-2 주먹장이음(각기동)	항목 세분화, 품 조정	기존 기동동바리아움 항목을 원기동, 각기동으로 구분 * 원기동과 각기동의 품 차이 발생, 주먹장이음 명시
	신설	4-28-3 엇걸이산지이음(원기동) 4-28-4 엇걸이산지이음(각기동)	신설	- 기존 동바리아움 품셈은 주먹장이음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엇걸이산지이음 시공 시 품 차이 발생
지붕 공사	조정	5-3 산자엮기	산자또개기 품 추가	- 기존 산자엮기 시 장작산자의 경우 제재소에서 생산 * 인력으로 원목을 쪼개어 산자를 생산함으로써 산자의 섬유질을 실려 진새 부착력 증대 및 원형 기법 전송
		5-8 마루기와와이기(3겹)	유사항목 통합, 재료량 조정(정미량)	- 마루기와와이기 항목 통합으로 가독성 확보 - 3겹이기의 암키와 수량 오류 조정(정미량) - 기와 재료할증 포함 문구 삭제(별도 할증 적용 중)
		5-9 마루기와와이기(5겹)		
		5-10 마루기와와이기(7겹)		
		5-11 마루기와와이기(9겹)	항목번호 수정	- 마루기와와이기 항목 통합으로 항목번호 재정렬
미장 공사	조정	7-11 양성바르기	재료량 및 기준 수정(재벌)	- 양성바르기 시 재벌 바름 기준 및 재료량 누락 * 초벌, 재벌, 정벌로 양성 바름 기준 명시
	신설	7-18 포벽해체	신설	- 포벽 해체 및 바르기 품 누락 * 일반 벽체와 포벽의 시공 품 차이 발생
		7-19 포벽바르기	신설	
		7-19-1 포회벽바르기	신설	
		7-19-2 포재사벽바르기	신설	
온돌 공사	조정	9-0 적용기준	소규모공사 산정 기준	- 온돌공사의 항목별 수량산출 기준이 달라 소규모 적용기준을 온돌해체 또는 설치 수량을 기준으로 명시 * 항목별 수량산출 기준이 달라 소규모공사 산출 기준 모호
석공사	수정	4 산출기준	수식 정정	수식 오류
단청 공사	신설	13-21 석간주가칠(전통소재단청)	전통소재단청 신설	- 전통안료를 사용하여 단청공사를 수행할 시 현대화학안료와 품의 차이가 큼 * 전통안료를 사용한 전통소재단청을 활성화 하여 전통재료의 진흥·보급 도모 - 또한, 단청공사 시 소모되는 재료량에 대한 기준 제시
		13-22 뇌록가칠(전통소재단청)		
		13-23 뇌록가칠-창호 (전통소재단청)		
		13-24 먹긋기(전통소재단청)		
		13-24-1 먹긋기(먹/분)		
		13-24-2 먹긋기(먹/분+변)		
		13-25 색긋기(전통소재단청)		
		13-25-1 색긋기(2빛)		
		13-25-2 색긋기(3빛)		
		13-26 모로단청(전통소재단청)		
		13-27 금모로단청(전통소재단청)		
		13-28 금단청(전통소재단청)		
		13-29 별화(전통소재단청)		
		13-29-1 단순		
		13-29-2 복잡		
기타 공사	신설	15-15 담장속채움해체	신설	- 담장공사 시 속채움의 해체·설치에 대한 품 누락
		15-16 담장속채움		

경력신고란?
문화재수리 경력신고 제도는 문화재수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수리 경력 관리 제도로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들은 문화재수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수행한 문화재수리 업무와 관련된 경력, 학력, 자격, 근무처 등을 인정받고자 할 시에는 해당 사항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신고하여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4(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 신청대상**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 제10조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동법 제5조, 제33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동법 제5조, 제33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3호의 7서식] 개정 2021. 7. 27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명			자격번호			
	주소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연번	배치시간	참여사업명	계약구분	직책	발주자명	확인 연월일	확인 (발주자)
1							
2							
3							
4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을 신청함

경력신고 의무화 시행 2023. 07. 27

[별지 제23호 서식] 현장배치확인표, [별지 제23호의 7서식] 문화재감리원
현장배치확인표에 첨부서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가 신설됨

첨부서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9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3. 계약구분은 수의계약규모, 수의계약규모초과를 적어야 합니다.

“보유기술자 능력 심사시, 2단계 이상 하향 조정하여 평가 가능한가요?”

(질의)
문화재청 예규 제221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124호의 문화재수리 종합심사(평가)낙찰자 결정기준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기준 점수방식에 따르면,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경력 인원수로 인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위경력으로의 하향조정 가능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바, 그 범위에 대하여(하위경력으로의 2단계 이상 하향조정 가능여부)질의 드립니다.

• 평가기준 점수 : Σ경력계수×등급계수

해당자격 취득년수	경력계수	경력별(경력계수 기준) 인원수	등급계수
15년 이상	2.0	2명 이상	10.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5	1명	8.0

※ 단,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인정 가능

표1. 보유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기준

(답변) 문화재청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수리업체가 다양화되고 고른 분포의 경력기간을 가진 기술자 및 기능자를 구성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심사 항목입니다.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사례(1)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4명, 7년 이상 1명, 7년 미만 0명일 경우, (산정방법) 2.0×10 + 1.5×10 + 1×0 = 35 ≫ 경력계수 2.0이 3인, 2인으로 산정함
- 사례(2) 해당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6명, 7년 이상0명, 7년 미만 0명일 경우 (산정방법) 2.0×10 + 1.5×10 + 1×0 =35 ≫ 경력계수 2.0이 2인, 1.5 2인, 1.0 2인으로 산정함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중 안전관리 심사 기준이 무엇인가요?”

(질의)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 관련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해 평가하는 안전관리 심사는 부칙에 따라 문화재수리 관련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이 산정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여부 및 사고사망만인율이 발표된 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을 함께 영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드립니다.

- (답변) 행안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3에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수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5] ‘5-라’에서 안전관리 심사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이 ‘건설업’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에 대해 비율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부칙(2020.8.31.)의 적용례에서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발표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 관련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의 경우 부칙(2020.8.31.)의 적용례에 따라 문화재수리관련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발표 이후부터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사고사망만인율이 발표된 건설업 보유여부와는 관계없이 문화재수리 관련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발표 이후부터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문화재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중 안전관리 심사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중 안전관리 심사기준 항목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하는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나, 2020년부터 환산 재해율을 발표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항목을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중 ‘안전관리 심사기준’ 평가방법을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개정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하여 운영합니다.

Part. 03

문화유산 수리의 역사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 초기의

역사와 전문인력 양성

국립문화재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 / 강현



그림 1. 1904년 송례문 전경

한국은 20세기 초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돼 일본의 강점이라는 수모를 겪었다. 이에 따라 건축문화재 보존도 일제강점을 전후해 처음 시작됐다. 한국에서 문화재라는 관점에서의 건축물 수리, 즉 건축문화재 수리공사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13년이다. 이는 일본에 의해 건축문화재에 대한 일제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치 평가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의 일이다. 관용 건축물로의 전용 등을 목적으로 1909년 탁지부 건축소에 시작한 건조물 조사는 매년 연차별로 조사가 시행됐으며, 1912년까지 1,300여 건에 달하는 목조와 석조 건축물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시점인 1913년에 경주 석굴암(慶州 石窟庵) 수리공사와 평양 보통문(平壤 普通門) 수리공사(1913.7~1913.12.)가 진행됐다. 이 공사들 이전에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유사한 공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1907년에 통감부 소속 탁지부 건축소에서 시작하였던 서울 남대문(南大門) 보존공사(1907.9.~1909.5.)다. 그러나 이 공사는 보존공사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남아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문화재 보존공사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¹⁾.



그림 2. 남대문 보존공사 이후 전경(일제강점기 사진엽서)

1) 이 공사가 명목상으로는 도시 교통로 정비를 목적으로 시행됐으며, 특히 1907년 해이그 일사시건물 계기로 고종(高宗)이 강제 퇴위 당한 직후 상백처리위원회(城壁處理委員會)를 구성해 성곽을 해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도심지 성문 공사의 시효로 이후 평양 보통문, 개성 남대문 공사 등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의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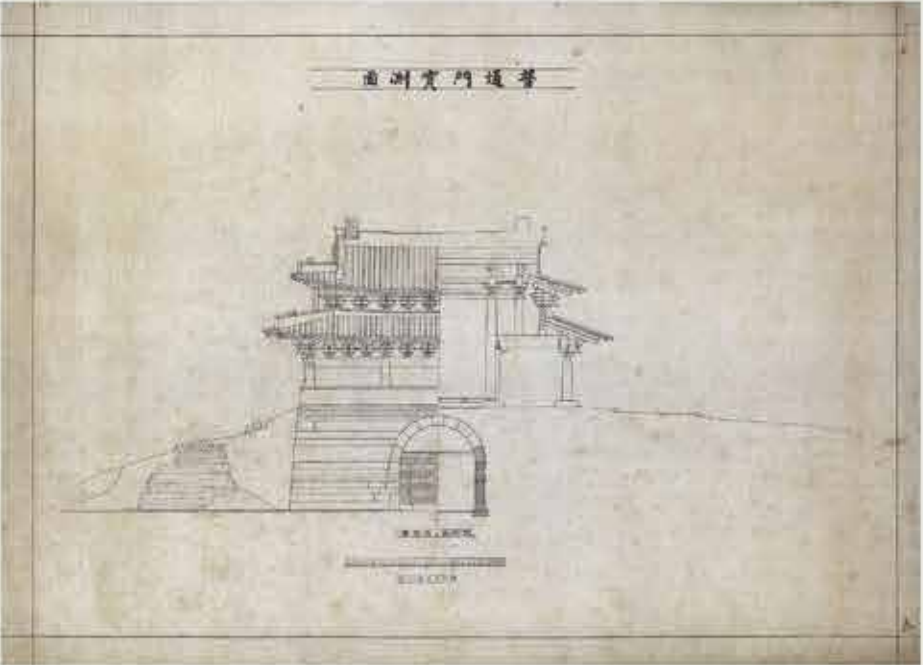


그림 3. 평양 보통문 수리공사 전 실측도



그림 4. 수리공사 후의 평양 보통문

이렇게 일제강점기 수리공사가 진행됐던 문화재를 보면 한국의 건축문화재 중에서도 그 중요도가 매우 높은 문화재들이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높은 평가를 받은 문화재를 위주로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석조물로는 경주의 석굴암 석굴(慶州 石窟庵 石窟), 익산 미륵사지 석탑(益山 彌勒寺址 石塔), 분황사 석탑(慶州 芬皇寺 石塔) 등이 이 시기 수리됐다. 목조물로는 수덕사 대웅전(修德寺 大雄殿), 부석사 무량수전(浮石寺 無量壽殿)과 조사당(祖師堂), 성불사 극락전(成佛寺 極樂殿) 등 여말선초 건축물들이 이 시기 수리된 것이다. 이러한 문화재들은 건조물 문화재 중에서도 국보급 문화재로 손꼽히는 문화재라 할 수 있다. 건축문화재 보존의 초기이므로 수리공사에 대한 방법론이 정립되기 이전에 중요한 문화재들이 수리됨으로 인해 향후 수리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림 5. 수리공사 중인 부석사 무량수전



그림 6. 수리공사 전 수덕사 대웅전

이처럼 1913년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수리공사가 시작된 이후 일제강점기 전 기간에 걸쳐 주요한 건축문화재들이 수리됐는데, 주목할 점은 주로 일본인에 의해 수리공사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현재의 수리공사기술지도 위원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고적조사위원으로는 초기부터 수리에 참여한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와 20년대 이후 한국에 들어와 활동한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현장의 수리기술자로는 초기 평양 보통문 수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기코 토모타카(木子智隆)를 필두로 해, 1916년 한국에 들어와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하면서 활동하기 시작한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등이 수리공사의 감독을 담당했다. 1930년대 이후에는 스기야마 노부조(杉山信三), 아케다 소오키(池田宗龜), 요시카와 코오지(吉川孝次) 등의 일본인들이 한국의 주요 건축문화재 수리를 담당했다. 또한 1920년대 후반 노세 우시조(能勢丑三, 1889~1954) 등 경주 지방에서 활약한 기술자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수리공사에서 한국인의 참여는 미미했다. 결과적으로 일제강점기의 중요한 건축문화재의 수리가 주로 일본인에 의해 진행됨으로써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의 축적은 한국인 기술자에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건축문화재 분야에서 일제강점으로 인한 영향 중 해방 이후까지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던 사항이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였다. 건축문화재의 보존 초기인 그 시기에 한국인 전문인력의 양성이 이뤄짐으로 인해 해방 이후의 수리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기 때문이다.

해방 이전 수리공사에 참여했던 한국인으로 이한철(李漢哲), 임천(林泉), 양철수(楊澈洙)²⁾ 등의 소수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 중 이한철(1909~1950)은 경성고공(京城高工)을 1935년 졸업하고 개성 관음사 대웅전(觀音寺 大雄殿) 수리의 감독관으로 근무했으며, 수원 화성(水原 華城), 강릉 객사문(江陵 客舍門), 춘천 청평사 극락전(春川 淸平寺 極樂殿)의 수리나 실측 등에 관여했던 분이다. 일제강점기 근대적인 건축 교육을 받고 수리현장에 종사했던 유일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불행하게도 한국전쟁 시기 작고함으로 인해 실제 해방 이후의 한국 수리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³⁾.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를 거치면서 건축문화재의 조사, 수리 등의 업무는 국립박물관(현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때 건축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임천(林泉, 1908~1965) 선생이다. 선생은 1929년 일본 동경미술학교 동양학과를 중퇴하고 1934년 보수채색화공(補修彩色畵工)이 되어 일제강점기 후반 수리공사의 단청 모사 등 작업에 다수 참여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 연구과보(研究課補)로 국립박물관에 근무하면서 건축문화재 조사나 수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선생이 참여한 수리공사 중에서는 해방 이후 최초의 해체수리라고 할 수 있는 강진 무위사 극락전(康津 無爲寺 極樂殿) 수리공사와 1961~63년 시행된 서울 남대문 수리공사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 중 건축문화재 보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1961년부터 1963년 진행된 남대문 수리공사는 해방 이후의 건축문화재 수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당시 공사의 감독관으로 국립박물관 소속의 진홍섭(秦弘燮), 임천(林泉), 김정기(金正基), 신영훈(申榮勳)이 참여했는데, 그중 건축 관련은 임천, 김정기, 신영훈 선생을 들 수 있다. 임천을 제외하면 김정기 선생이나 신영훈 선생은 당시 약관의 나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전문인력이 부족했던 상황을 말해준다.

2) 이 세 분은 스기야마(杉山信三)의 『韓國の中國建築』에서 언급된 분들이다. 양철수는 김동진 선생의 회고에 의하면 '소화공진(昭和工賑) 건축과 출신으로, 연세가 대략 조원재(趙元載)와 비슷하고 임천보다는 조금 위이며, 해방 이후 화원사 각황전 수리에도 참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건축연구센터, 『파본 김동진 구술집』, 2015, p.42.]하였다고 하는데, 서울 남대문 수리공사 시에도 공사 관계자로 이름이 남아 있다.

3) 이창마, 「이한철의 고건축 실측·수리 활동과 자술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26권 1호(통권 110호), 2017.2



그림 7. 남대문 수리 보고서 표지

공사감독관으로 참여한 김정기 선생은 일본 메이지대학 공학부 건축학과를 1956년에 졸업하고 동경대학 공학부 건축사연구실에서 연구생으로 있었다. 그 후 1959년에 귀국해 10월, 국립박물관의 학예연구관으로 임용돼 남대문 수리 공사의 감독관으로 참여하게 된 분이다. 1969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전신인 문화재연구실이 신설될 때 박물관에서 자리를 옮겨 실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1975년 문화재연구소가 설립되자 초대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고고 분야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박물관에 근무하면서 남대문 수리공사 후반부에 감독관으로 근무했던 신영훈 선생은 이후 문화재전문위원으로 활약했다. 그리고 당시 학교를 갓 졸업해 실측이나 제도에 참여했던 최용완(崔容完), 김주태(金周泰) 선생 등은 이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약했다. 최근 남대문 화재 이후 복구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공사를 주관한 김의중 선생도 이 당시 실측에 참여했던 분이다.

한편, 이 공사에 참여했던 기능인들도 이후 건축문화재 보존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활약했다. 당시 공사에 목수로 는 조원재(趙元載), 이광규(李光奎) 등의 대목이 참여했으며, 그 아래 실제 목수로 참여하였던 정대기(鄭大基), 신응수(申鷹秀) 선생 등이 후일 대목장으로서 그 계보를 이어 나갔다. 또한 도 석수로 참여한 김천석(金千石)은 드잡이로 유명하며, 2000년대 미륵사지 석탑 수리공사에서 드잡이공으로 활약했던 홍정수 선생 등으로 그 계보가 이어진다. 결국 해방 이후 진행된 남대문 수리공사 현장은 일제강점기 수리공사에 참여했던 임천으로부터 시작해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기술자의 맥을 이어 주는 장으로의 역할을 했던 현장이라 생각된다. 즉, 이 수리공사는 향후의 건축 문화재 보존 전문인력의 배출의 장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에서 배출된 인력이 건축문화재 보존 분야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향후 보존의 토대가 됐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 위에 60년대 이후의 수리공사가 진행되고 설계, 수리 등에서 점차 인력들이 배출되기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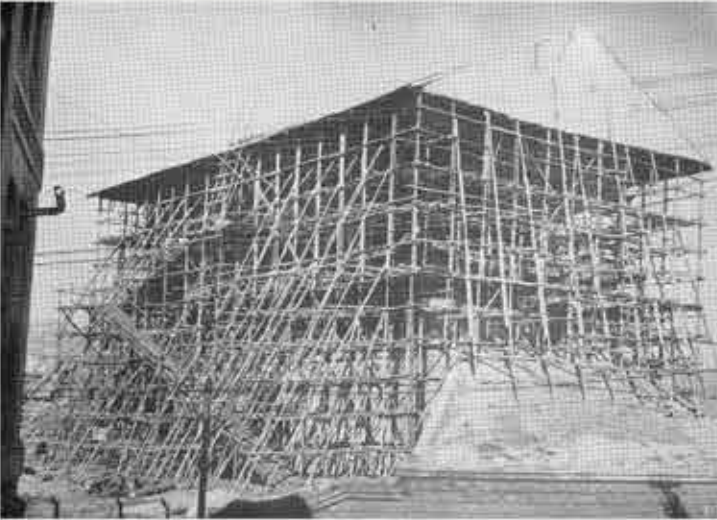


그림 8. 남대문 수리공사 가설뒀집 전경



그림 9. 단청시공 감독하는 임천(1962)

Part. 04

문화유산 특별기고

새로운 문화재수리 입찰제도 운영결과에 대한 소고 | 25

진화하는 유산의 개념과 보존의 방향 | 28



새로운 문화재수리 입찰제도

운영결과에 대한 소고 전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장 / 정영훈

문화재수리협회의 <문화유산 담> 창간을 축하드리며, <문화유산 담>이 문화재수리업계의 각종 이슈토론과 최신정보 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운 좋게 저는 창간호에 문화재수리 중심제·중평제와 관련된 간단한 기고를 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제가 그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문화재수리 중심제·중평제 운영결과를 금년 문화재(文化財)지에 투고한 바 있어 연구 결과를 요약해 알려드리고, 이를 통해 문화재수리 중심제·중평제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평가낙찰제는 2013년 송례문 부실 단청 논란을 계기로 도입된 입찰제도입니다. 부실 단청 논란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분야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재수리혁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시설공사 적격심사제도를 개선해 '능력 있는 문화재수리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게 '적정한 수리대가'를 지급해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이 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입찰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로는 수리 능력과 관계없이 '운 에 의한 낙찰'이 가능한 시설공사 적격심사제도의 문제점에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범사업의 형태로 도입된 새로운 입찰제도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평가낙찰제였습니다.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발주할 때 사용하는 제도로 근거법은 국가계약법이며, 문화재수리 종합평가낙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할 때 사용하는 제도로 근거법은 지방계약법입니다. 공공기관 입찰과 관련된 우리나라 양대 법률에 문화재수리만을 위해 독자적인 계약 제도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준 것은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문화재수리 분야에서만 인정된 내용으로, 문화재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해 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전폭적인 협력을 해준 결과였습니다.

아래 표는 문화재지에 실린 시설공사 적격심사제도와 문화재수리 중심제·중평제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제도와 문화재수리 중심제·중평제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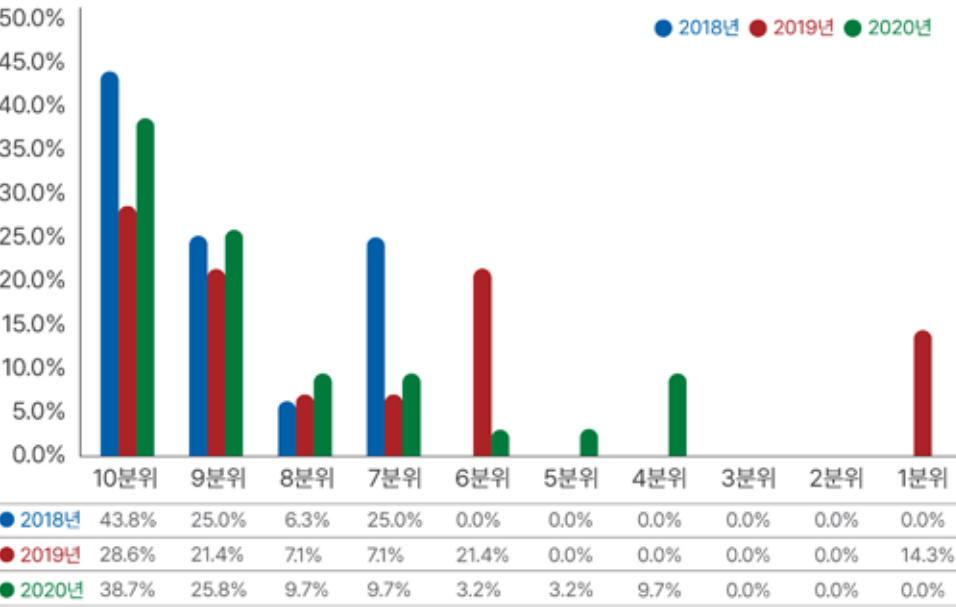
	시설공사 적격심사제도	문화재수리 중심제·중평제
도입계기	·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1995년 도입	· 송례문 부실수리논란을 계기로 2016년 도입
입찰대상	·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및 일괄·대안 입찰 공사를 제외한 300억 원 미만의 일반공사 ·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수리 중심제·중평제 3등급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1등급 문화재수리 : 지정문화재로서 추정가격 15억원 이상 · 2등급 문화재수리 :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입찰방법	· 낙찰하한율을 넘는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기타평가 심사 (당해공사 수행능력,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 입찰가격 점수와 기타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 (예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은 95점 이상)인 자를 선정	· 수리이행능력 (수리실적, 배치기술자 및 보유기술자 능력, 수리업경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경제성평가를 동시에 수행하여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 · 경제성 평가의 경우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입찰자에게 높은 점수 부여
장점	· 빠른 시간 내에 낙찰자를 선정 가능 · 심사항목이 매우 간략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서류준비 부담 적음	· 실력있는 문화재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의 평균 투찰가를 이용하므로 저가수주를 방지하여 적정한 수리비를 보장하도록 설계됨
단점	· 문화재분야는 입찰가격평가 비중이 70~90%로 실력보다는 가격이 우선이 됨 · 예정가격을 잘 예측하여 투찰하면 낙찰되므로, '운'에 의한 낙찰자선정 방식이라고 비판받음	·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경우보다 많음 · 보유기술자·기능자의 수와 경력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문화재수리 중심제·중평제의 운영 결과로는 첫 번째, 예정가격 10억 원 미만의 문화재수리가 약 44.7%(51건),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은 31.6%(36건)에 달해 20억 원 미만으로 발주되는 경우가 전체의 76.3%에 달했습니다. 문화재수리분야가 일반건설보다 영세함에 따라 문화재수리 중심제·중평제 대상의 예정가격도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재 수리업체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수리 중심제·중평제 대상이 지정문화재일 경우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 주변 정비사업은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문화재수리 중심제·중평제 대상 이 많아질수록 신규 수리업체 등 시공실적이 부족한 업체들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 재청은 그간 고시를 통해 문화재수리 중심제·중평제 대상 수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재수리 중심제·중평제 대상은 114건으로 예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114건의 입찰공고에 총 2,19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1건당 평균 19.25개의 회사가 참가했 습니다. 2,195개의 투찰 중 741개의 투찰이 경제성 평가 1등을 차지해 약 33.7%가 1등을 했고, 1등 과 나머지 등수 간의 비율을 살펴보면 약 1:2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기간별로 세분화해 보면 회계예규 개정 전인 2016~2018년까지는 경제성 평가에서 1등을 차지한 업체가 약 56.7%에 달해 과반수가 1 등이었으나, 2019~2020년에는 그 비율이 약 15%로 줄어 기존 제도에 비해 경제성 분야의 분별력이 더 높아졌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경제성 분야의 분별력을 높인 이유는 특정 업체의 과점을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수리업체의 진입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문화재수리 중심제·중평제에 입찰한 업체들의 수행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2018년도부터 문화재수리 협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수리능력평가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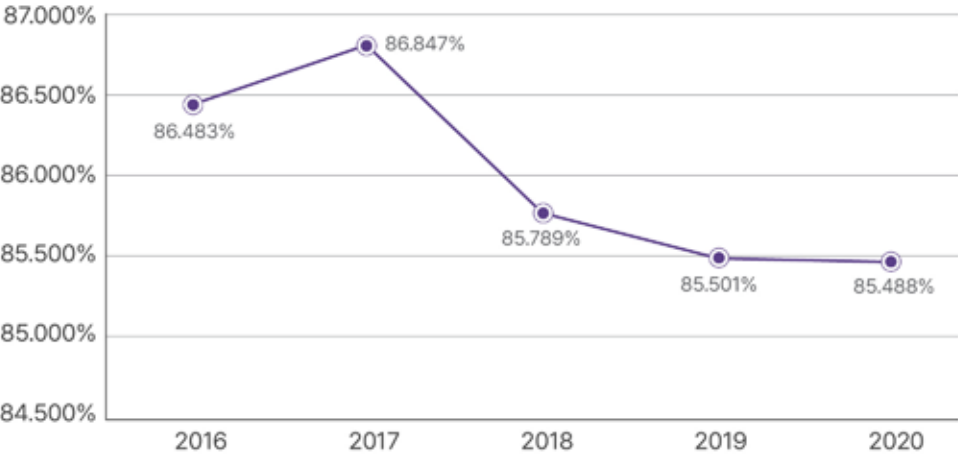
2018-2020년까지의 연도별 낙찰자의 문화재수리능력평가역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8년(파란색), 2019년(빨간색), 2020년(초록색) 낙찰자의 과반수가 상위 20%인 10분위와 9분위에 있습니다. 즉 수리이행능력이 높은 업체가 낙찰된 것으로 나타나, 문화재 수리 중심제·중평제 도입의 초기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적절한 문화재수리 대가가 보장됐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개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래의 표는 연도별 문화재수리 중심제·중평제에 따른 낙찰률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연도별 평균 낙찰률(낙찰가격 B/예정가격 C)



201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낙찰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문화재수리 분야에서만 발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건설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 표한 「공공공사비 산정 및 관리실태와 제도적 개선방안」에 따르면 시설공사 적격심사로 발주된 공사보 다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된 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설분야 실제 참여 프로젝트 낙찰률 평균

매출규모	시설공사 적격심사	일반건설 중심제	기술입찰형
500억원 이상	81.85%	77.29%	95.31%
500억원 미만	85.11%	83.74%	85.75%

추정되는 문화재수리 중심제·중평제에서의 낙찰률 하락 원인으로는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서 '낙찰하한률' 설정과 같은 낙찰률 하락을 방지하는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일반건설분야에서도 나 타난 학습효과 즉, 앞선 투찰률과 낙찰률이 계속 하향 추세를 감안해 저가 투찰을 하는 경향이 문화 재수리 중심제·중평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으로 파악됩니다. 연구결과 낙찰 횟수 상위그룹의 업체에서도 저가 투찰의 경향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문화재수리 중심제·중평제의 도입을 통해 발주자 입장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견실한 문 화재수리업체를 선정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다만 새로운 입찰제도의 낙찰률 저하 문제는 일반 건설분야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로서 투찰자의 학습효과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문화재청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시행한 바 있어 장기적으로는 개선되리 라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새로 도입된 입찰제도가 문화재수리분야에 잘 정착하길 바랍니다.

진화하는 유산의 개념과 보존의 방향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 이 수 정

문화재청은 문화재라는 용어를 ‘유산’이라는 용어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재는 재화적 성격이 강한 용어로 개념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문화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돼야 한다는 논의는 있어 왔다. 그렇다면 현재의 개념을 담아내기 위해서 ‘유산’이라는 용어가 왜 더 적절하다는 것일까. 대상으로서의 문화재에 대한 개념의 변화 그리고 관점의 변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재는 ‘옛것’, ‘과거로부터의 소산’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조금 더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공동체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산물’이라고 할 것이다. 문화유산을 직접 수리하고 관리하는 우리는 더 전문적인 관점에서 대상으로서의 유산, 행위로서의 수리와 보존을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념이 등장한 근대기부터 대상을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와 함께 행위의 원칙이 진화·발전해온 과정과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대상은 문화유산이므로, 대상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행위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의 탄생은 산업혁명 이후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 그리고 역사적 산물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르네상스 시기에 인본주의가 발달하고, 인류의 역사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중요한 학문이었다. 상업의 발달과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적 풍요, 식민지 개척을 통한 다른 문명과 문화에 대한 관심, 지리학·미학·과학기술 등의 학문적 발달 등은 역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과거의 산물에 새로운 관심으로 이어졌다. 상류층 자제들은 역사와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 전 유럽을 여행하면서 역사적·예술적 소양을 쌓았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들은 그리스·로마 시대에 대한 애정을 예술품 수집으로 충족하면서 경쟁적으로 발굴을 후원하면서 당시의 역사적 흔적을 수집했다. 진품을 감정하는 전문가가 등장하고, 이들을 통해 역사의 빈 곳은 물리적 증거물로 채워져 역사학이 깊이를 더하게 됐다. 이러한 당대의 흐름은 역사적 증거, 인간의 예술적 활동의 산물로서 문화재를 탄생시키게 됐다. 이 시기에 문화재는 소유자와 재화 가치가 분명한 동산 유물에서부터 출발했다. 발굴에서 발견된 전대의 유물이나 이전부터 내려온 예술품은 기존에 기록이나 역사서를 통해서만 이해하던 인류의 역사를 물리적인 증거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됐다. 역사적 증거물로서 문화재를 인식하는 관점에서 그에 대한 행위로서의 보존은 역사적 증거물을 원래의 모습대로 ‘동결’시키는 데에 목표를 뒀다. 역사적 사건, 인물, 의미 등을 물리적 산물에 담아내는 것을 문화재라고 인식하니 당연히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의 목표는 증거가 되는 물리적 측면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대상을 이해하는 초점이 역사적 증거물에서 ‘유산(heritage)’으로 이동한다. 역사적 증거물은 과거, 현재, 미래 세대 간에 상속을 통해 전달되므로 유산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재화적 측면보다는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가치’가 중요한 속성이라고 봤다. 또한 누가 소유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인류와 모든 세대가 공유하고 함께 보호해야 할 ‘공공의 자산’으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역사적 증거가 되는 기념물, 건축물 외에도 여러 세대가 문화와 전통을 만들며 살아온 흔적이 쌓인 역사 도시, 그들의 생각, 행위, 전통, 사상 등 무형적 측면이나 주변의 자연환경 등 명확한 범주를 설정하기 어렵거나 재화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대상까지도 유산의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산이 지닌 가치를 파악하고, 그 가치를 잘 보존해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행위 목표가 됐다. 그렇다고 역사적 산물로서의 동결보존의 원칙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유산의 핵심 가치는 역사적·예술적 가치이며, 이들 가치를 보존하는 행위에서 원형을 보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역사적 산물을 유산으로 인식하는 관점은 1980년대를 전후해 ‘자원(resource)’으로 보는 관점으로 이동했다. 역사적 흔적이 담긴 산물(historical object)은 세대 간에 전달되는 유산인데,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자원(historical resource)’이기 때문이다. 유산은 인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원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치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만 자원으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유산에 대한 변화를 잘 관리하고, 이를 위한 합리적 판단이 행위의 목표가 됐다.

문화유산의 개념과 속성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보존행위를 이해하는 관점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로 보존은 ‘가치에 기반을 둔 행위’이다. 유산의 핵심 속성은 가치에 있으므로, 보존과정에서 이뤄지는 판단은 그 기준을 유산의 가치에 두는 것이다.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존·복원·수리·정비하고, 모두가 가치를 이해하고 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두 번째로 보존은 ‘공적 행위이자 사회적 절차(public action, social process)’다. 유산은 공적 가치를 지닌 산물이기 때문이다. 유산은 개인이나 일부 집단이 아닌 국민과 인류 전체를 위한 자원이므로,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당연히 공적 행위가 된다. 나아가 공적 행위는 반드시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실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개인적인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결과의 좋고 나쁨에 대해 개인에게만 그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산과 같은 공적 자산의 보존은 그 결과가 현재와 미래의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공익을 위한 판단은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이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세 번째로 보존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하는 행위(informed conservation)’다. 가치 중심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가치를 판단하고, 유지하고, 활용하는 가치 중심의 사회적 절차를 해나가는 데에 단순히 해당 문화재에 대한 역사적·학술적·문헌적 정보뿐만 아니라 제작기법, 보존상태 등을 포함한다. 이에 앞서 해당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 유사 문화재와의 관련성 등 매우 세밀하고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공유하며, 그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존은 물리적인 측면을 동결 또는 손상을 멈추도록 조치하는 행위를 포함해 나아가 ‘변화를 관리해(managing change) 유산이 지닌 가치를 지속하도록 하는(enabling sustainability)’ 행위다. 유산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누가 평가하는지에 따라 다른 관점이 적용되고 변화 또는 확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치에 대한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정보수집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보존의 속성이다.

대상의 속성을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행위로서의 보존의 성격과 목표는 여전히 변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유산은 유·무형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이라는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유산은 그것이 지닌 가치와 의미,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유산이 되고, 가치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유지하고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적 행위로 이어지므로, 유산 그 자체는 우리의 정신적·학문적·인지적 활동으로 형성되는 하나의 활동이자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존의 목표와 방향은 다시 설정될 수 있다. 우리에게 아직 유산에서 자원으로 개념적 확장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므로, 과정으로서의 유산을 이해하는 담론은 앞으로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Part. 05

문화유산 수리 이야기



경주 월성해자 정비·재현 공사 | 32

부산 송정역 복원설계 | 40

고구려의 유적 아차산(峨嵋山) 일대 보루군(堡壘群) | 45

지정 별 : 사적 (유적건조물, 정치국방, 성, 성곽, 1963. 01. 21. 지정)
종 면 적 : 201,116㎡(동서방향 890m, 남북 260m, 둘레 2,340m), 독립구릉
사 업 명 : 경주 월성해자 정비·재현 공사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387-1번지 일원

경주 월성해자 정비·재현 공사

(주)현창문화재기술단 | 최 성 립



북동쪽에서 본 월성

경주 신라 왕경의 핵심 유적지인 월성"과 그 외곽의 방어시설인 해자"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1984년 시굴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사적지다. 이 중 해자는 발굴성과에 따른 정비·재현이 결정되면서 2016년 본격적인 실시설계가 시작됐고, 정비·재현을 위한 공사는 2018년 12월에 착수했다.

공사 내용

2000년에 수리한 '나'구역 해자(담수해자)는 바닥 준설과 함께 이완된 석축을 정비하고, 2008년, 2012년에 건(乾)해자로 정비한 4, 5호는 해자의 기능을 위해 담수가 가능한 해자로 재정비했다. 그 외 1-1, 1-2, 2, 3호 해자는 발굴 시 확인된 해자 선형을 바탕으로 재현하는 공사다. 아울러 정비·재현된 해자는 서로 입·출수구로 연결하여 물이 상시 흐르도록 해자의 기능을 담았다. 또 해자 북측에서 확인된 건물지 5개 동에 대한 초석 재현과 함께 정비된 해자를 관람객들이 편히 즐길 수 있도록 조경식재와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월성해자 현황 전체 배치도

월성해자 계획 전체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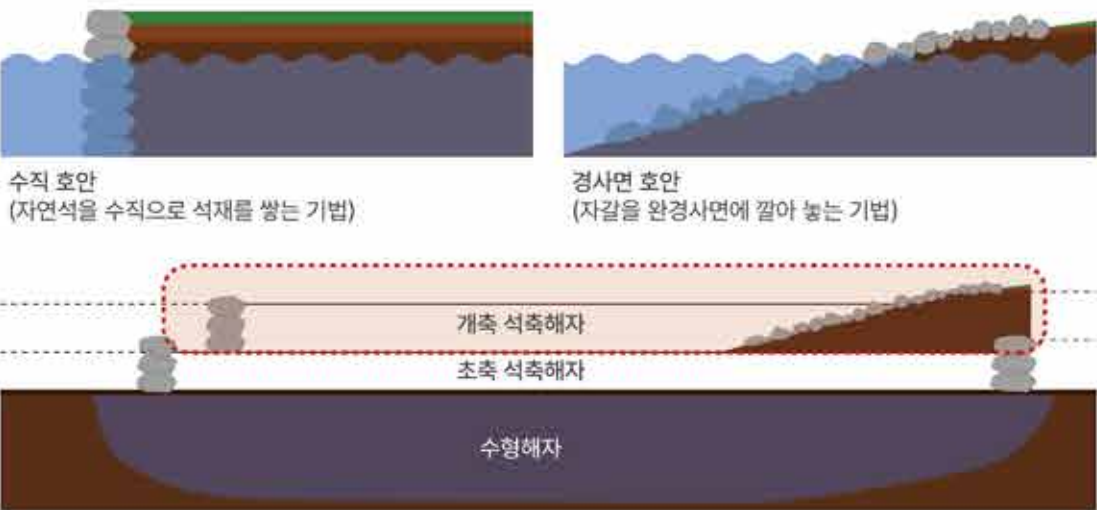
정비 지침

- 해자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장 잘 남아 있는 석렬(石烈)을 기준으로 하여 정비
- 1~3호 해자는 유구를 보존하기 위하여 일정 높이로 성토하되, 월성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조성 높이를 최소화하고 규모는 확인된 유구 석렬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석렬 안으로 재현

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현창문화재기술단 공동 기획 특별전시회 도록, 현창에서 만나는 신라 월성, 2019.
신라 왕경의 중심인 월성(月城)의 기록은 『삼국유사』, 『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사이사금 22년(101) 2월 성을 쌓아 월성이라 하고 7월에 왕이 월성으로 옮겨 살았다고 한다.
② 구릉에 위치한 월성은 남쪽으로는 자연 하천(남천)이 흐르고 북, 동, 서로는 흙과 돌로 성벽을 만들고, 그 허부에는 인공 도랑을 파서 해자를 조성하였다. 해자는 월성 내·외의 경계 역할뿐만 아니라, 지수(治水), 조경 기능, 적으로부터 월성을 방어하는 기능을 가진다.

- 4, 5호 해자는 담수 해자로 재정비, 각 해자는 입·출수구를 통해 자연유수(물 넘김) 방식으로 조정
- 재현 시기는 수혈해자 위에 석축을 쌓고 호안을 조성한 시기(통일신라 8~9세기)를 기준으로, 담수 높이는 0.5m이며, 담수 모의실험(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 취수량과 유속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

월성해자의 변천 (재현은 개축 석축해자를 기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 도록 - 신라왕궁, 월성 (2017)



월성 해자 호안의 변화



석빙고 외부 진동계 설치

석빙고 내부 진동계 설치

월성사면 신축계 설치

공사 진행에 앞서, 월성 문화재(월성, 석빙고 및 지하 유구)의 안전을 고려하여 석빙고 내·외에는 진동계를, 월성 사면으로는 신축계를 설치해 주변 문화재의 변위를 수시 모니터링했다.

공사 진행은 문화재청(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시, 관계 전문가의 기술지도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착공 후에도 해자 발굴(경주문화재연구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발굴 현안들을 감리단과 시공팀에서 즉각 인지할 수 있었다. 정비 계획에 대응할 방안도 연구소와 실시간 협의가 가능했다. 발굴 완료 후에는 후속으로 시공팀이 즉각 투입돼 유구 보호를 위한 정비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유구 보호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사료 된다.

일반적으로 발굴이 완료되고 나면 발굴팀에서 유구 보호를 위한 보양 조치(위장막 및 모래주머니 설치, 발굴토 포설 보양 등)를 한 후 정비 계획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방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유구가 온전히 보존되고 있다고는 장담하기 어렵다. 정비 계획안이 나온 후에는 시공사에서 발굴 유구의 보양 시설물을 제거하는데, 제거과정에서 도면과 현황이 상이하거나, 보양 두께가 명확치 않아 유구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월성해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발굴이 진행됐고 발굴 작업의 마무리쯤에 정비 계획안도 함께 진행됨에 따라 유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전국에 많은 유적지가 현재 발굴 중이다. 앞으로는 발굴과 정비계획이 많은 시차를 두지 않고 발굴과 함께 정비·활용이 하나의 구성으로 진행됐으면 한다.



석빙고 외부 진동계 설치 석빙고 내부 진동계 설치 월성사면 신축계 설치

해자 공사의 관건(關鍵)은 발굴로 확인된 유구를 보호하고 유구 손상 없이 담수가 가능한 해자로 정비·재현함이다. 유구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계획도면과 현황, 주요 석렬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작업을 실시 한 후 본 공사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토공사는 유구 보호를 위한 모래 포설이다. 이는 유구와의 재료 분리 층 역할도 겸한다. 모래 다짐 높이는 자문에 따라 최소 300mm 확보를 기준 했다. 모래 포설 작업은 유구 손상을 최소화하고 발굴된 형태가 그대로 존치되는 방안을 기준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토목공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공기압축기로 모래를 분사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다. 분사할 때는 물 호수와 연결해 모래에 가수(加水) 하면서 압력으로 다짐했다. 처음으로 시도한 공법이어서 다짐 완료 후에는 다짐 정도에 관한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 다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정 구간을 다시 인력으로 모래층을 걷어내고 확인했다. 그 결과 유구의 이완도 없고 다짐 밀도는 높았다. 유구 주변으로 바로 기계 장비가 올라가지 않으니 유구 손상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 앞으로도 발굴지 정비에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구가 1차 도포된 상태에서는 기계장비(백호)를 활용한 모래 포설이 진행됐고, 포설은 규준틀(1회 = 200mm 기준)을 설치하고 모래 포설 → 다짐(플레이트 콤팩트 활용)을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발굴로 확인된 각 해자 지반은 동고서저(東高西低)로 경사지다. 그러나 담수를 위해 해자 바닥은 수평을 유지해야 하고, 재현되는 해자 높이는 월성의 경관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므로 동쪽은 유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300mm) 높이 까지만, 포설하고 서쪽은 지반에 따라 동쪽 높이에 수평 지게 모래 다짐했는데, 최소 300~1,000mm 이상 되는 곳도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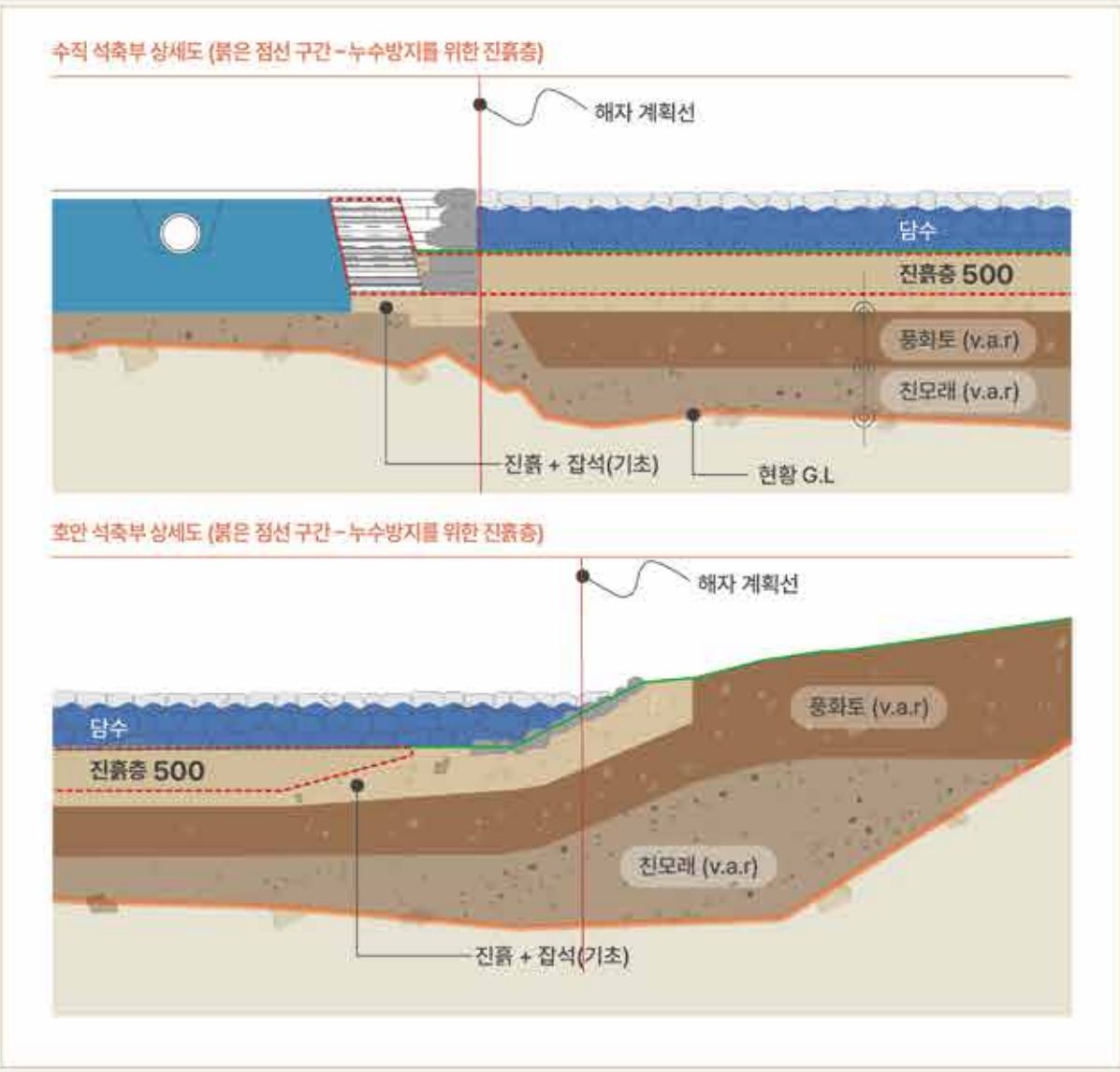
노출된 석재 유구 노출된 석재 유구



모래 분사기 포설기를 활용한 모래 분사 다짐



포설기를 활용한 모래 분사 다짐 (트렌치 구간) 플레이트 콤팩트 다짐



적정 높이까지 모래를 다짐한 다음, 해자 바탕 면의 응집력을 높이고 지진 시 액상화 방지를 위해 풍화토를 포설했다. 풍화토 포설 및 다짐 작업도 모래와 같은 방법으로 1회 (200mm) 포설 규준틀을 설치하고 포설과 다짐을 층층이 반복했다.

모래 다짐 완료 시에는 틀밀도시험(다음도 95%이상)을 통해 다짐을 확인하고, 풍화토 다짐 시에는 항후 석축이 조성되는 위치에 지내력 시험을 실시해 기준값(설계기준 기초 지반 : 5~10ton/m²) 이상을 확인하고 다음 공정을 진행했다.



들밀도 시험



지내력 시험

입·출입 수량(水量)이 일정 높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수 차단층 조성(진흙 다짐)과 석축의 침하, 이완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 순서는 먼저, 해자 바닥에 기초 작업을(진흙+잡석) 실시 → 석축 뒷면에 진흙 판축으로 해자를 감싸는 층을 조성 (폭 800mm, 높이 1,100mm) → 진흙 판축 측면은 고무망치로 다짐 → 해자 선형에 따른 석축 쌓기를 하였으며, 석축 뒤채움 구간에도 일부 진흙층을 설치했다.

해자 전체 바닥도 진흙 판축 다짐 층(500mm)을 실시해 각 해자는 물을 담을 수 있는 토기 형태로 조성했다. 판축 다짐은 건식으로 1회 200mm로 기준하고, 습식에 사용되는 진흙은 사용 3~4일 전에 반죽(이겨)해 충분히 찰기를 증진했다.



동화토 포설 및 다짐



석축 기초 지짐(진흙+잡석)



해자 바닥 기초(진흙+잡석)



진흙 뒤채움 (판축 다짐)



진흙 질삭 면 고무망치 다짐(판축)



석축 쌓기

석축 쌓기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 자료를 근거로 쌓기 방법, 형태, 석재 규격을 결정했으며, 더불어 인근 동궁과 월지의 석축 쌓기 방법도 참고해 시범시축 시행 후 결정했다. 4, 5호 해자는 할석이 주류를 이루는 바른층쌓기로 확인되었고 사면이 모두 수직 석축이다. 1~3호 해자는 넷돌과 할석이 혼용된 허튼층쌓기며, 월성 사면 방향은 넷돌로 호안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굴과 가장 유사한 석재를 수급하기 위해 경주 대종천에서 넷돌을 채집해 호안석을 조성했다. 채집된 넷돌로 다양한 색과 규격으로 자연스럽게 호안을 연출했고 호안석의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겹겹이 물리도록 비늘 쌓기 방법으로 시공했다. 더불어 호안석 사이에는 진흙층이 유실되지 않도록 자갈로 채웠다.



호안석 비늘 쌓기



호안석



호안석 규격 확인



해자 바닥 진흙 다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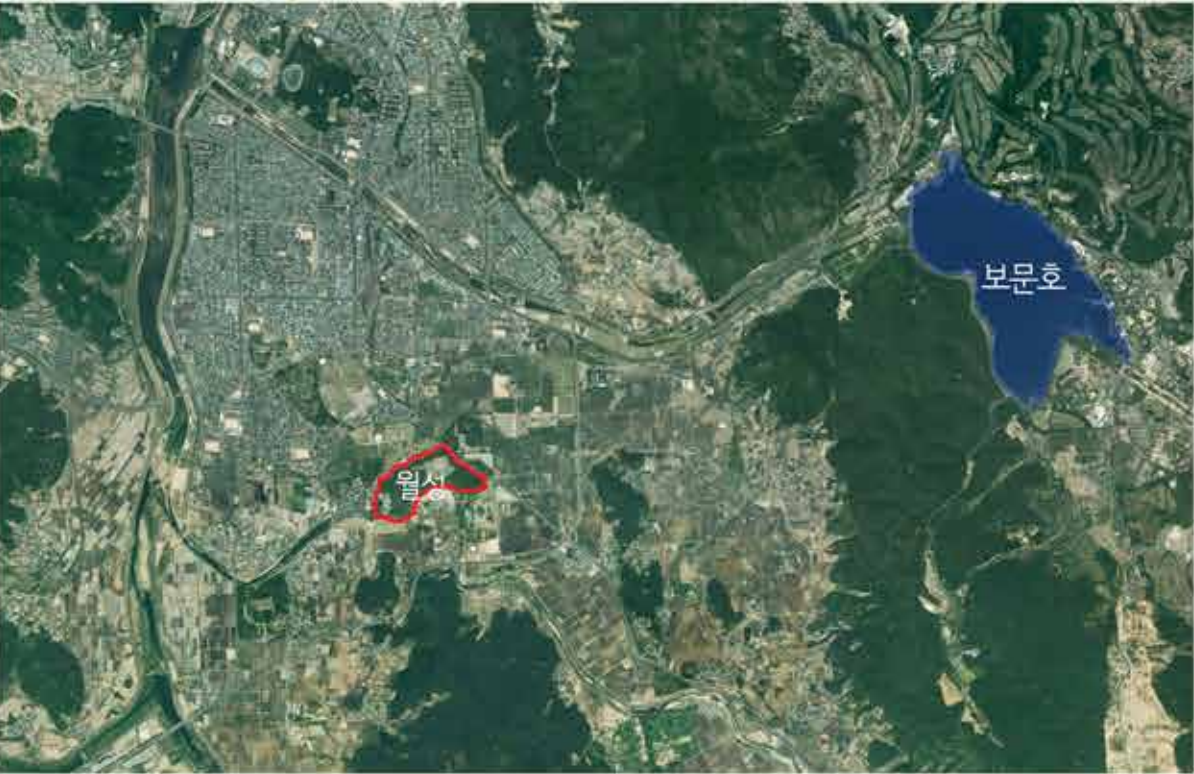


해자 바닥 진흙 다짐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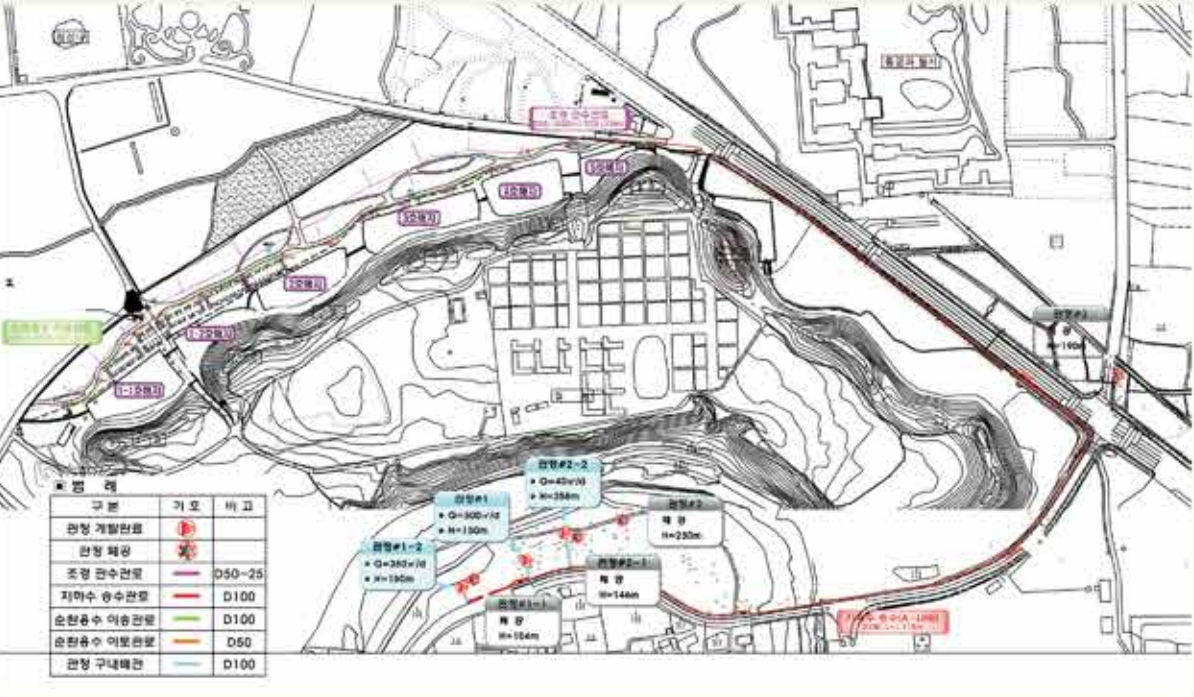


월성해자 전경 (사진 제공 - 재단법인 신라문화연구원)

해자의 수원(水源)은 일차적으로 원지반에서 샘솟는 지표수와 침투수로 추정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공사 시에도 지속해서 해자 바닥에서 물이 나와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고, 이에 배수처리도 공사 지연에 한몫할 정도였다. 해자의 과거 수계(水系)까지 파악해 재현하면 좋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오랜 시간의 지형변화와 수계 주변으로 많은 구조물이 자리를 잡고 있어 본 공사에서는 용수공급을 위해 보문호에서 방출하는 농업용수(4~9월)와 인공적(지하수) 개발로 수원(水源)을 공급하는 방안을 정했다. 해자로 유입되는 수량과 방출되는 수량 그리고 해자에 체류하는 시간, 필요한 유속 등을 고려해 1일 600ton의 수량이 공급돼야 해자가 원활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수리해석을 바탕으로 월성 남천 인근에 3개의 관정을 개발해 수량을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수원 공급에 어려움이 따를 것에 대비해 1호 해자(출수구) 인근에 저류조를 설치해 1호 해자에서 배수되는 용수를 저장한 뒤 다시 5호 해자로 유입되도록 순환시스템을 부가 설치했다.



월성과 보문호의 위치도 - Daum 지도



관정 개발 위치와 해자 용수공급 흐름도



해자 전경

경주 월성 해자 정비·재현 특징

1. 주변에 산재한 문화재(월성, 석방고, 지하 유구 등)를 보존하기 위해 진동 계측기, 신축 계측기, 진동방지시설 등을 설치해 공사 중 주변 문화재에 대한 영향 여부를 확인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했다.
2.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로 발주처인 경주시, 문화재청(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의 정례화된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했다.
3. 발굴(국립문화재연구소)과 수리·정비가 동시에 이뤄진 현장으로 정비 시 생기는 문제점이나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협의·해결함으로 유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4. 30년간 발굴된 유구 보호를 위해 모래다짐 실시가 설계됐다. 유구 보호를 위해 문화재 수리시 최초로 압력 분사기를 활용해 광대한 구간 의 발굴지를 인력으로 유구 보호 모래층을 도포했다. 모래 분사기는 일정한 압력으로 유구
5. 해자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용수공급 시설을 설치해 24시간 물이 흐르는 해자로 재현했으며 갈수기를 대비해 용수순환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췄다.
6. 문화유적으로 관람객들이 늦은 시간까지 유적지를 즐길 수 있도록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고문헌에 나오는 식생을 바탕으로 관람로 주변에 조경과 쉼터를 구성했다.
7. 발굴된 유구를 기본으로 석축 쌓기법과 석재크기 등을 검토한 후 여러 차례 시연했고, 발굴 유구와 유사한 넷들을 관계부서 협조하에 채집해 사용함으로 자연스러운 호안을 조성할 수 있었으며, 중요 사안들은 기술 자문의 도움으로 공사를 마무리했다.

해자가 낙조로 물들면 주변의 청동오리들이 해자에서 향유를 즐긴다. 관람객들은 탐방로를 산책하면서 이러한 경관과 해자, 월성을 보면서 전 년 전의 신라 왕경을 상상할 수 있길 바란다.



해자 야경(사진 제공 - 재단법인 신라문화연구원)

문 화 재 : 부산 송정역 (釜山 松亭驛) 등록문화재 (2006.12.04)
송정역사 1동(건축면적 96.3㎡), 노천대합실 1동(건축면적 132.0㎡), 역사 좌우측 각 150m 철로/승강장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8번길 60
소 유 자 : 한국철도공사 | 발 주 처 : 해운대블루라인(주)

부산 송정역
복원설계

이소건축사사무소(주) | 김 미 진



그림 1. 준공 후 송정역사

부산 구 송정역 복원공사

부산 구 송정역은 동해안의 해산물과 연선 지방의 자원을 수송하고자 부설한 동해남부선의 역사 중 하나다. 구 송정역은 1934년 역무원 무배치 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해 1941년 보통역으로 승격했다. 역사는 보통역으로 승격되면서 목조로 건립한 것으로 추정하며, 역사 옆에는 철골구조의 노천대합실이 있다. 이 역은 1978년 화물취급을 중지하고 폐역했으나,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을 활용한 '부산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그린레일웨이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당시 모습을 되살려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수리 범위는 송정역사와 노천대합실 2동이었으며, 2020년 공사 준공 후 현재는 관광열차 매표소와 대합실로 사용하고 있다. 수리는 문화재보수기술자인 이창목 소장(現서우건축 대표)이 맡았다. 소규모 문화재여서, 실측설계와 수리의 각 공정이 좀 더 촘촘할 수 있었던 사례다.

문화재 경관 보존

구 송정역은 2006년 등록문화재로 등재하면서 송정역사 한 동, 노천대합실 한 동, 역사 좌·우측으로 각각 150m의 철로와 승강장을 그 범위에 포함했다. 경관을 위한 조치였으나, 흔히 볼 수 있는 콘크리트 승강장과 철로인 점, 150m라는 구체적인 제한이 언뜻 낯설기도 했다. 유사한 역사 사례를 조사하면서 주변 일대가 개발되고 단일 문화재만 섬처럼 보존된 사례들을 접하고, 송정역 초기개발안 중 대규모 상업시설 추진안을 확인하고 나니, 필수적인 조치라는 것에 확실히 동의가 됐다. 철로와 승강장을 없애고 들어선 빌딩들 사이에 송정역사만 끼어있는 상상을 해 보면 다른 설명이 더 필요 없었다. 새삼 건축물 수리와는 별개로 보존할 대상과 범위는 송정역의 정체성과 가치를 형성하는 유형적, 무형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하면서 실측조사에 착수했다.

송정역사의 수리

송정역사는 평면 좌측부터 관리실, 역무실과 역무실 배면으로 돌출된 운행실, 대합실로 구성돼 있다. 동해남부선 역사 중 이 유형은 정면 우측 끝에 위치한 대합실 지붕부에 박공이 구성되고, 대합실의 주출입문이 박공 중심축보다 좌측에 치우친 모습이 특징이다. 박공 중심에 맞춘 환기창과 같이 보면, 상·하의 개구부가 엇갈려 있어 좌우대칭에 익숙한 시각에서는 조금 불편하기도 하다. 대합실만 놓고 보자면, 매표소가 면한 좌측 공간에 플랫폼으로 나가는 출입동선을 뒤야 우측에 승객이 머물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인 듯하다.



그림 2. 송정역사 평면도(수리 전)



그림 3. 송정역사 평면도(수리 후)



그림 4. 덕하역 장면



그림 5. 송정역 정면(수리 후)

송정역사의 경우는 현황 실측조사에서 증축부와 변형부가 비교적 명확히 구분돼서 복원계획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동해남부선의 역사들에 대해 유형별 변화양상을 분석한 선행 연구도 참고해 조사결과와 비교 검토했다. 대표적으로 관리 공간 증축과 역무실 및 대합실 벽체 변경이 있었다. 증축은 배면에 돌출된 운행실 좌측으로 이뤄졌고, 실측조사 시에는 탕비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열차의 운행방식이 자동화되면서 운행실의 3면 창을 통해 열차의 운행을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되자, 편의를 위해 관리 공간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증축부(수리 전)



그림 7. 복원한 송정역 모습

대합실에 인접해 별도로 화장실을 신설하고 대합실에서 출입이 용이하도록 창문을 축소하여 출입문을 내면서 대합실 벽체도 변형이 됐다. 이러한 증개축 양상은 이 노선의 동일 유형 역사에서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증축부는 철거하고 변형된 운행실 및 대합실 외벽은 남아있는 창호부재와 사진자료를 근거로 복원했다.



그림 8. 대합실 벽체(수리 전)



그림 9. 대합실 벽체(수리 후)

수리 중 덧대어진 바닥과 벽체의 마감재를 해체하면서 건립 당시 관리실과 역무원실의 구성도 드러났다. 관리실은 실측조사 시에는 통실이었으나, 세 개의 실로 구획된 구성과 각 실의 마감, 벽장 등이 확인됐다. 역무원실과 대합실을 구분하는 벽체는 덧대어진 판재 등을 제거하자 수소하물취급구, 매표대의 설치 흔적 등이 확인돼 복원했다. 복원에 필요한 건축 각부의 상세는 동해남부선의 좌천역, 덕하역, 남창역에 남아있는 건립 당시 모습으로 추정되는 상세를 조사하여 반영했다. 문화재의 해체 공정은 이와 같이 철거가 목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재조사의 의미를 포함한다. 송정역 역시 수리 중 확인된 전술한 사항을 바탕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특히 수소하물취급구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수화물창구로 더 익숙한 이 개구부는 현장에서 목재로 구성된 문일 굴이 드러났을 때, 모호한 개구부 크기와 높이에 그 용도를 알 수 없었다. 매표대 높이보다는 낮아서 창문으로 보기에는 크고, 넘어갈 문턱 높이도 아니었다. 요즘같이 물류산업이 발달하기 이전에 기차로 물품을 보내고 찾던 창이었다. 물품은 창구 크기 이내였을 것이고, 그 양은 역무원실 내에 쌓아둘 수 있을 만큼이었을 것이다.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 기능은 역무원실에서 분리돼 별도로 옮겨졌다가, 이제는 역 내에서는 사라지고 물류산업으로 대체된 것이다. 가까운 과거인데도, 잊힌 생활방식이어서 용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복원할 뻔한 부분이었다. 근대건축물을 수리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흥미롭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다. 전통건축을 다룰 때도 용도나 연유를 알 수 없는 배치나 구성을 접할 때가 종종 있는데, 현재의 변화한 시각으로 과거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그림 10. 매표소 벽체(수리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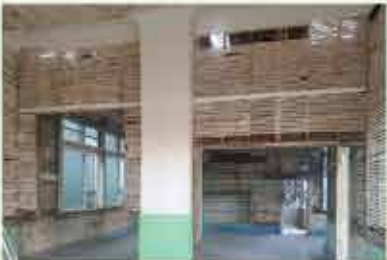


그림 11. 매표소 벽체(수리 중)



그림 12. 매표소 벽체(수리 후)

지붕재는 아스팔트싱글로 마감돼 있는 것을 자문 받아 인근에 남아있는 송정역 관사의 지붕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사 지붕은 석면슬레이트 마름모꼴기로 돼 있었으므로, 형태와 설치방식이 유사한 대체재를 선정해 시공했다. 원래의 경관을 되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질감이 다소 상이하고 수입 제품이라는 단점이 있었기에 적지 않은 고민을 했었다. 이런 경우에는 강판을 접어 슬레이트의 형태와 색상을 구현하기도 하지만, 그 역시 원래의 물성은 아닐뿐더러 시공성도 고려한다면 한 번쯤 다른 대체재를 시도해 보고자 하는 선택이었다.



그림 13. 슬레이트 대체재 설치 후 전경



그림 14. 대체재 상세



그림 15. 송정역 관사 전경



그림 16. 관사 지붕재 상세

송정역사는 천장과 일부 외벽에서 미장을 재현했다. 사실 미장을 재현하는 실제적인 방식은 설계 시에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창목 소장이 고심해 제안하고 시공한 부분이다. 천장 미장은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못 간격을 기준으로 삼실을 격자로 설치해 시공했다.



그림 17. 노출된 기존 삼실



그림 18. 신규 설치한 삼실

벽체 하부 징두리벽의 인조석물씻기는 기존 것과 차이가 작도록 재료 배합비를 달리해 색상을 맞추고, 골재 크기의 조정을 여러 차례 거친 후 적용했다. 징두리벽 상부 미장은 오토돌돌한 거친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검토 끝에 가끼오도시 미장법에서 표현할 방안을 찾았다. 적절히 건조된 미장면을 임의의 손도구를 일일이 찍는 방식으로 기존 미장과 유사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했는데, 일부의 적은 면적이었기에 가능한 방법이었다.



그림 19. 인조석 혼합비를 시험



그림 20. 미장면 질감 처리 작업



그림 21. 기존 벽체 질감



그림 22. 재현한 벽체 질감

맺음말

송정역사를 수리하는 과정을 간략히 소개해 봤다. 송정역 복원공사는 설계사무소와 수리 현장이 소통하면서 작은 부분들이지만 새로운 재료와 공법을 시도해 볼 수 있었던 프로젝트다. 해체를 할 수 없는 실측조사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수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크고 작은 실마리들을 현장에서 신중히 다뤄 주고 실측설계사무소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준 이창목 소장에게 지금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근대건축물은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증개축해 사용했기 때문에 켜켜이 쌓인 시대적 층위가 유독 많은 문화재다. 이러한 문화재를 수리하는 데는 층위별 보존요소를 가려낼 줄 아는 기술자의 신중함과 경험적 안목이 가장 중요한 소양이 아닐까 싶다. 근대문화재 수리를 하면서 일반건설업체의 신속하고 무분별한 철거를 종종 경험했다. 제지하면 돌아오는 질문은 '낡고 썩어서 불필요한 것을 왜?'였다. '그렇게 소중하면 뜯어서 다 줄 테니 가져가'라는 조롱도 있었고, 보통 인부를 불러서 하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는 불만도 있었다.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다. 오래된 가치를 다뤄온 기술자와 테크니컬한 시공력으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온 기술자는 명확히 전문분야가 다르다. 문화재를 수리할 때는 낡은 타일이나, 거칠게 끊어져 나간 목재 한 귀퉁이를 보면서 찬찬히 고민하는 안목이 절실하다. 짧고 성급지만, 이러한 이유로 문화재 수리 현장에 일반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지난 7월 19일 발의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문화재 : 아차산 일대 보루군 사적(2014.10.27.)

총 면적 : 987,881㎡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중랑구·노원구 및 경기도 구리시 일대

소유자 : 서울시 등

고구려의 유적 아차산(峨嵯山) 일대 보루군(堡壘群)

(주)세운 | 아승연

2020년 가을 아차산일대보루군(阿且山 一帶 堡壘群) 중 시루봉과 망우산1보루 주변정비공사를 했다. 시루봉보루는 토사침식이 심각한 정상부 인근의 탐방로 정비와 조망을 위한 주변 수목 정리가 주된 공정이었고, 망우산1보루의 경우 노후한 탐방로 정비와 토사 유실이 심각한 보루 상부를 성토한 후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이 주요 공정이었다. 여러 문화재 수리 현장 중 유독 이곳이 기억에 남는 것은 힘들게 공사를 완료했고, 결과물이 흡족해 보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차산 일대 보루군은 누가 언제 왜 쌓았나

아차산일대보루군에 대한 연구는 1988년 백제의 도성으로 추정되는 몽촌토성에서 전형적인 고구려 토기가 확인된 후, 아차산을 중심으로 고구려 유적을 발굴·조사하면서부터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문화재청의 자료와 각종 조사보고서 그리고 논문을 참조해 아차산 일대 보루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아차산일대보루군은 아차산보루, 용마산보루, 시루봉보루, 수락산보루, 망우산보루 등 17여 개의 보루로 이뤄진 유적으로 그중 일부를 제외한 10여 개의 보루가 고구려의 보루로 추정되고 있다. 보루군에 대한 연대 측정은 발굴된 유물의 편년과 역사적인 정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500년 전후에서 551년 사이로 보고 있다. 즉, 475년 고구려 장수왕에게 한성을 함락당한 백제는 도읍지를 웅진(현 공주)으로 천도하고 고구려군은 몽촌토성에 남아 주둔한다. 이후 한강 유역을 회복하고자 백제군이 다시 복상했던 500년 전후에 몽촌토성 앞 강 건너로 후퇴한 고구려군이 방어를 목적으로 아차산 일대에 보루를 설치하였으며, 이곳은 551년 신라와 백제 연합군에 의해 한강 유역을 상실할 때까지 사용되었다. 이곳은 약 2,000여 명의 고구려 군사가 주둔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사적(史蹟)으로 지정된 아차산일대보루군은 현재 남한 내에서 고구려 관련 유적이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곳이며 고구려 국경지대 요새의 구조와 성격, 국경방위체계, 군 편제 등을 밝혀주는 귀중한 역사 자료로서 고구려의 남하과정, 한강 유역에서의 대치와 관리방식, 한강을 둘러싼 삼국의 각축과 발전과정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유적이라 밝히고 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어느 현장에나 있는 사사로운 고난들

앞서 잠깐 언급한 당시 시루봉보루 및 망우산1보루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다. 시루봉보루의 경우 현장까지의 자재 반입이 특히 기억난다. 시루봉 정상까지의 등산로는 바위투성이의 돌길과 살짝만 벗어나면 차가 구를 것 같은 좁고 경사진 길이 대부분이었다(운전의 베테랑이라 자부하던 나도 이곳은 차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런 등산로로 어렵게 옮긴 마사토, 계단목, 철근 등은 현장에 훨씬 못미쳐 내려야 했는데, 시루봉보루의 악한 지반 보호를 위해 보루에서 250m까지는 장비를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1m가 넘는 무거운 말라스 계단목 100여 개를 인력으로 운반하기란 상당히 고된 작업이었다.



말라스 계단목 목도 운반



전경을 마친 시루봉 정상 수목



시루봉 상부계단 설치



시루봉 하부계단 설치



시루봉 정상부 탐방로



안전을 고려한 목책 마무리

망우산1보루의 경우 탐방로가 아님에도 수많은 탐방객이 보루를 가로질러 오르는 바람에 생겨난 보루 상부의 사잇길을 성토하고, 보루를 가로질러 오르려는 초입부에 맥문동을 심어 동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보고자 했다. 공정상 아무 어려움이 없었던 이 현장의 경우 누군가 자주 맥문동을 뽑아놓는 바람에 어이없는 하자가 계속 발생했다. 기존의 잘못 난 길로 보루에 오르고자 맥문동을 밟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맥문동을 뽑고 있었다. 이 글을 쓰면서 망우산1보루의 최근 사진들을 검색해보니 공사 당시 없었던 간단한 목책이 설치됐고, 새로 심은 맥문동을 지켜달라는 현수막(탐방로 이용하기, 새로 심은 맥문동 지켜주기)이 걸려 있었다.



망우산1보루 경계목 설치 작업



망우산1보루 인력 성토 다짐



망우산1보루 맥문동 식재 모습



망우산1보루 수목 전정 작업

마지막으로 이 수리 현장이 더 어려웠던 것은 당시 내가 일과 병행하여 박사논문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몸은 바쁘고 마음은 원가에 항상 쫓기고 있어 지금 생각하면 의연하게 지낼 수 있는 별일 아닌 일들이 그때는 마음을 어지럽혔다. 어쩌면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예상치 못한 공정상의 어려움도 발주처와의 관계도 늘어지는 서류 작업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공사는 훌륭하게 마무리됐고 논문도 완성했으니 다시 생각해보면 가장 보람된 시기였을 수도 있겠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나는 한동안 내 인생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에 합격한 것은 그 만큼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대학 2학년 때 승주 선암사의 작은 공간들에 반한 이후로, 물론 모든 여행지를 좋아했었지만, 특히 옛사람과 그들의 이야기가 있는 전통 공간은 묘하게 마음을 가라앉혀 나를 편안하게도, 쓸쓸하게도 했다. 그냥 좋아하는 게 다였던 내가 문화재수리기술자라는 직업을 알게 된 것은 대학을 졸업한 후 조경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다. 현재는 남편이지만 당시에는 그냥 친구였던 대학 동기가 전주 객사 공사 현장에 무턱대고 들어가 소장을 면담한 후 "이러한 자격증이 있고, 이게 있으면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일 할 수 있다더라" 알려줬다. 갈팡질팡 목적을 몰라 갈지자로 걷던 내게 독바로 전진할 수 있는 인생의 목표를 준 것이다.

문화재수리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지 어느새 17년이 지났다. 물론 지금은 직업 말고도 여러 중요한 목표가 있고, 내 인생의 기점을 문화재수리기술자 합격에 두지는 않는다. 다만 옛 공간을 좋아하고 아끼고 감탄하는 데에서 나아가, 더 깊이 이해하고 보살피게 한 문화재수리기술자인 내가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 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인 내 직업이 천직임을 믿는다.

우리 옛건축에 담긴 표정들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을 찾아나선 젊은 건축학도의 탐방기다. 자연을 닮은 선을 사용해 자연과 융합하려는 모습, 영역을 한정하여 만들어지는 공간의 아름다움과 활용, 인공미가 느껴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조경, 개체와 전체 공간과 감상 포인트 등을 먼저 이야기한다. 그후 궁궐, 성곽, 사찰, 향교와 서원, 살림집 등으로 나누어 대표적인 30곳을 예를 들며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옛 건축을 궁궐, 성곽, 사찰, 향교와 서원, 살림집으로 분류, 30여 실물 유구를 시각적으로 느낀 대로 알기 쉽게 해설한다. 저자는 우리 건축의 공간 구성과 환경과의 조화에 관심을 가지고 건축물의 숨겨진 표정에 천착하고 있다. 인공물이면서 자연을 닮은, 그래서 인위적인 조경조차 자연의 일부처럼 보이는 우리 건축에 심취해 있는 것이다. 요즘은 무엇이든지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치장하고 감성에 호소하는 책들이 흔한 시대이다. 하지만 류경수 씨는 옛 건축을 연구함에 있어 불국토를 형상화한 수도 공간으로서의 사찰, 왕권의 권위를 위한 장엄을 보여 주는 궁궐, 삶의 지혜와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살림집 등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보여 주려 했다. 김동현(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참다운 옛 건축의 이해를 위하여
고건축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

Part. 06

문화유산 서가

작가 : 류경수
출판 : 대원사
출간 : 1998.11.10
가격 : 18,000원



문화유산 다이어리

학창 시절, 우리의 역사 공부는 대부분 책상에 앉아 이뤄졌다. 간혹 답사를 다닌다 해도 아주 이름 있는, 국보급 문화유산만 보아 온 것도 사실이다. 내 삶과 닿지 않았던 문화유산, 그래서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그 대상을 친숙하게 마주하는 법이 있다. 바로 내 고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문화유산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 가까이 두고 있어 막상 그 중요성을 몰랐던 많은 역사적 장소가 있다. 그리고 문화재가 산재하다. 늘 가던 공원이나 유원지, 등산로와 산책길 군데군데 숨은 유적지를 찾아내는 일은 의외로 일상의 큰 활력을 준다.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보고도 몰랐던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이제 그 장소는 예전에 알던 그것이 아니다. 11인의 저자는 그런 숨은 문화재를 찾아가며 우리 옛 선조들과 소통을 이어간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발자취를 찾아가는 길에서, 저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삶과 인생을 이야기하며 위로를 받는다. 이 책은 그런 여정을 통해 로컬 역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전하고 있다.

로컬 역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
문화유산 답사의 첫걸음,
우리 동네 역사 찾기



작가 : 오지연 외 10인
출판 : 생달북스
출간 : 2022.03.25
가격 : 13,500원

창경궁과 종묘 연결 역사복원 사업

위 치 : 종로구 창덕궁 돈화문 - 원남동사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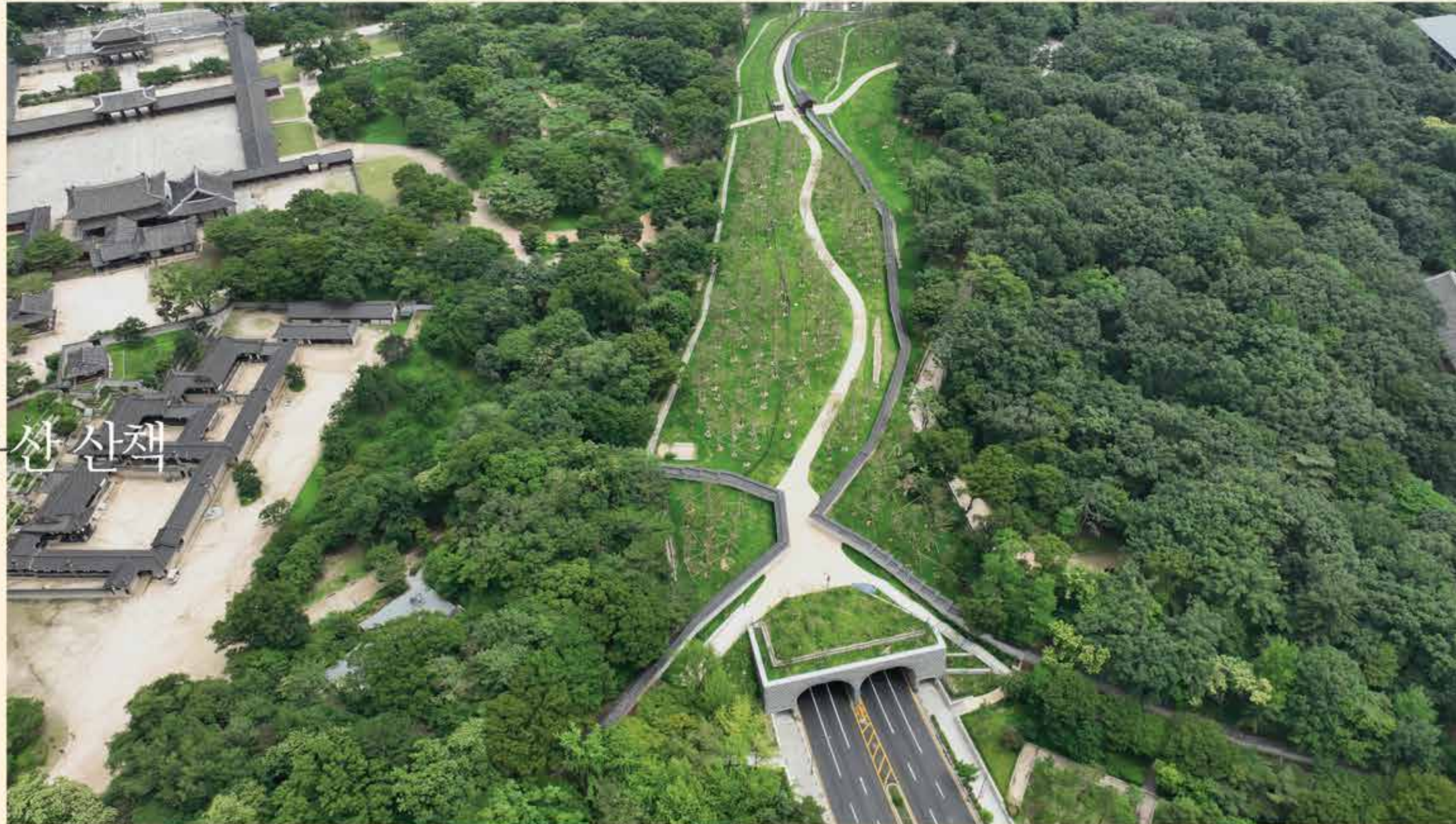
사업내용 : 도로 확장(4→6차로, 810m), 터널 조성 320m, 상부 궁궐담장 503m, 보행로 340m, 조경 교목 760주 등

공사기간 : 2010.11.(기공식 2011.5.) - 2022. 6.

총사업비 : 1,008억원

Part. 07

문화유산 산책



문화재수리로 이어진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 90년 만에 열려

문화재수리의 정수를 보여준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이 완료됐다. 이로써 2022년 7월 22일 복원된 담장·녹지와 새로 조성한 궁궐담장길은 시민들에게 개방돼 우리 역사의 흔적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됐다.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위패)를 모신 왕가의 사당으로,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재(1995.12.)된 세계문화유산이다.

원래 창경궁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숲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1932년 일제가 '종묘관통도로(현 율곡로)'를 개설하면서 창경궁과 종묘를 갈라뼉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 비공식적으로 종묘를 방문할 때 이용했던 '북신문(北神門)'도 사라져버렸다.

그 후 9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드디어 일제가 갈라뼉은 창경궁과 종묘를 다시 연결하게 된 것이다.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시켰던 율곡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축구장보다 넓은 녹지(약 8,000m²)를 만들어 끊어뼉던 녹지축을 이었다. 일제가 없애버린 창경궁과 종묘 사이 궁궐담장

•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종묘와 사직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 당초 종묘와 동궐(창덕궁·창경궁)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숲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조선총독부가 광화문 앞에서 창덕궁 돈화문을 지나 조선총독부(서울대학교병원)의 전신인 대한의원, 국권을 빼앗긴 뒤 개명) 앞을 통과하는 도로를 만들며 창경궁과 종묘를 갈라뼉고 구름다리(관덕교, 철거 후 잔재는 서울역사박물관 보관)를 놓았다.

• 일제는 풍수지리상 북한산의 주맥이 창경궁에서 종묘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을 도로의 신설과 확장이라는 미명 아래 끊어버렸다. 주산(主山)은 창덕궁과 종묘 사이의 동산으로, 두 지역을 힘 있게 이어주고 있었음을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503m)과 북신문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했다. 궁궐담장의 경우 공사 중 발굴된 옛 종묘 담장의 석재와 기초석을 30% 이상 재사용했다.

복원된 궁궐담장을 따라 조선왕실의 발자취를 느끼며 산책할 수 있는 길이 340m, 폭 3m의 '궁궐담장길(돈화문-원남동사거리)'도 새롭게 생겼다. 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보행약자도 걷기 편리하도록 계단과 턱이 없는 완만한 경사로 설계됐으며, 원남동사거리에는 산책로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번 역사복원은 과거 동궐(창덕궁·창경궁)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지만, 일제의 율곡로 개설로 인해 섬처럼 분리돼버린 종묘를 선조들이 계획하고 건설했던 공간으로 되돌려 조선의 궁궐과 국가상징물의 역사적·전통적 가치를 회복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창경궁-종묘 역사복원이 완성됨에 따라 인근의 청와대, 서울궁예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광화문광장과 녹지공원으로 돌아올 송헌동 부지까지, 서울 도심이 역사·문화·예술·녹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거듭나는 데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은 일제가 허문 궁궐담장(503m)을 선형 그대로 복원했다. 창경궁과 종묘 사이를 약 8,000m²의 녹지대로 연결하고, 담장을 따라 창경궁을 바라볼 수 있는 궁궐담장길(340m)을 조성한 것이다.

서울시,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 12년 만에 완료

- 일제가 허문 '궁궐담장 및 복신문' 원형복원
- 궁궐담장 산책할 수 있는 '궁궐담장길'도 신설



을곡로 돈화문 앞



을곡로 원남동사거리

궁궐담장은 원형이 남아있는 주변 담장형식을 토대로 하고, 1907년 제작된 '동궐도', 1931년 발간된 '조선고적도'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했다. 복원공사 중 발굴된 기초석에 맞게 지반의 높이를 옛 모습대로 맞추고, 공사 중 발굴된 종묘 담장의 석재와 기초석 30% 이상을 재사용했다. 발굴된 옛 궁궐담장 기초석은 원래 자리에 보존·전시해 '궁궐담장길'을 찾은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다. 궁궐담장과 함께 사라진 복신문도 복원했다. 서울시는 종묘의례(1706~1741), 승정원일기 등 문헌을 통해 규모와 형태가 가장 유사한 창경궁의 동문(東門)인 월근문(月覲門)을 참고해 복원했다.



하늘에서 본 역사복원공간

- 창경궁-종묘 단절구간 연결은 2007년 시가 발표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의 4대 남북축 가운데 '녹지문화축'의 시발점이자, 서울시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남북녹지축의 중심이다.
-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는 서울도심의 활성화를 목표로 청계천변을 기준으로 4대 남북축(역사문화축, 관광문화축, 녹지문화축, 복합문화축)을 정비해 서울도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내용이다. 이중 창경궁-종묘 연결구간이 포함된 '녹지문화축'은 창경궁-종묘-세운상가-퇴계로-남산의 단절된 녹지축을 복원해 창경궁과 남산을 녹지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궁궐담장 주변으로는 약 8,000m² 규모의 전통 숲이 조성됐다. 창경궁과 종묘 수림에 분포된 참나무류와 소나무, 귀룽나무, 국수나무, 진달래 등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교목 760주와 관목, 화초를 심어 자연스러운 다층구조의 숲을 완성했다. 궁궐담장길은 돈화문 앞에서 창경궁 내부를 지나 원남동사거리까지 총 340m 길이로 조성됐다. 친환경 황토 콘크리트로 포장돼 궁궐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어우러진다. 조선시대에는 없었지만, 이번 역사복원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한 길로, 90년 만에 하나가 된 창경궁-종묘를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슬로건 공모전



2022. 9. 1 ~ 2022. 10. 31

문화재수리업에 대하여 전국민이 공감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
- 1인당 2개 이하의 작품 응모 가능(각 작품별 신청서 작성)

공모주제

- 문화재수리협회의 사업 의의가 잘 드러나는 대국민 공감 메시지
* 문화재수리협회 사업은 협회 홈페이지 사업설명 내용 참조
- 문화재수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문화재수리·문화재실측설계·문화재 감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문화재수리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문화재수리협회의 역할을 잘 드러내는 슬로건 제시

공모일정

- 접수기간 : 2022. 9. 1. ~ 2022. 10. 31.
- 결과발표 : 2022. 11. 10.
- 시 상: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협회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접수방법

- 제출방법 :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슬로건 서식 다운로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suyyouu@kcpra.or.kr) 제출
- 메일제목 : [슬로건공모] 성명
- 문의처 : 02-584-1866

시상내역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 공제 후 지급될 예정

구분	상금	시상 인원	시상 내용
최우수	100만원	1명	문화재수리협회장상

심사기준

- 슬로건에 담겨 있는 적합성, 의미전달력, 창의성, 간결성

유의사항

- 입상 작품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및 일체의 권리는 주최 측에 귀속됨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경우, 공제 후 지급 (수상자 본인 부담)
- 슬로건 선정작은 협회 사업에 활용되며 필요에 의해 수정 혹은 변형 가능
-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타공모 선정 슬로건은 신청 불가
- 응모작의 저작권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문화재 수리

‘문화재수리’란 문화재의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하며, 원형보존에 따른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므로 문화재에 대한 특별한 기능과 기술을 갖춘 자로서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와 시·도에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만이 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의 종류

문화재 실측설계	실측설계란 문화재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를 실측하거나 고증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		
문화재 감리	문화재감리는 일반감리와 책임감리로 구분되며, 일반감리란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업무이다. 책임감리는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종합문화재수리	보수단청업	- 건축·토목공사 및 단청의 시공 - 보수단청업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등	
전문문화재수리	조경업	- 조경공사의 시공 - 조경업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등	
	보존과학업	- 보존처리(동산문화재는 제외)의 시공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보존처리 - 보존과학업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등	
	식물보호업	-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시공 - 식물보호업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등	
	단청공사업	- 단청의 시공 - 단청공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등	
	목공사업	목공사의 시공	
	석공사업	석공사의 시공	
	번와공사업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일)의 시공	
	미장공사업	미장공사의 시공	
	온돌공사업	온돌공사의 시공	

문화재수리 프로세스

발주자	실측설계	문화재수리업	문화재감리업
사업계획 사업검토 설계용역 발주	기초연혁조사 현황조사 및 실측 설도면작성 공사물량 산출 공사내역 작성	사전조사 해제/조사 수리범위 제검토 수리방향 재설정 문화재 수리	사전조사 공사내용검토 관련 법 확인 수리과정 검토 발주자와 수리업자 매개역할 최종확인

협회 안내

문화재수리협회는 문화재 수리·실측설계·감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기술의 향상을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 설립근거

- 제42조(문화재수리협회의 설립)
- ① 문화재수리업자들은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제사업 등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수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문화재수리협회는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문화재수리협회의 회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지회나 분회를 둘 수 있다.
 - ⑤ 문화재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공제사업, 문화재수리협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요사업

- 1. 문화재수리, 문화재실측설계 또는 문화재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에 관한 사업
- 2. 문화재수리 및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등"이라 한다)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업
- 3. 회원과 그 종사자들의 품위보전 및 윤리 확립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 4.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수리실적 및 종사자 경력관리
- 5.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공제사업
- 6.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위탁된 사무
- 7. 문화재수리등 및 문화재수리업등과 관련된 법령, 제도, 시책의 개선 연구 및 시행 지원에 관한 사업
- 8. 문화재수리등의 품질 및 기술 향상에 관한 사업
- 9. 그 밖에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연혁

- 2011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설립근거 마련
- 2015 문화재청 특수법인 설립인가 「문화재청 제2015-25호」
- 2016 「문화재수리 경력실적관리 구축 운영 매뉴얼」 연구 용역수행
- 2017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기본구상」 연구 용역수행
- 2018 「문화재수리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 「문화재청고시 제2018호-6호」
- 2019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경력·수리능력평가 관리) 구축·운영
- 2020 Heritage Korea Award 2020 수리복원 부문 문화재청 표창 수상
문화재수리업계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 및 공시
- 2021 문화재업종실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조달청 정보연계 (실적·경영상태) 시행
문화재 실측설계·감리 실적 시범사업 시행
- 2022 문화재수리종사자 자율교육 관리 위탁기관 지정 「문화재청고시 제2022-25호」
문화재수리업등 면허등록 자본금확인서 발급 시행

공제조합 안내

공제조합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문화재수리 관련 사업자 분들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업등)

공제조합은 “왜” 필요 한가요?

- 높은 보증수수료 비용**
- 계약법상 의무화하고 있는 각종 보증증권(계약, 선금금등) 발행 시 수수료가 높은 상업보험회사를 주로 이용
- 사고위험 대비 부족**
- 문화재수리업 등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위험에 무방비 노출 (근로자재해사고, 영업배상책임 문제 등)

- 경제적 혜택**
- 공제조합의 당기순이익 발생 시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경제적 혜택을 드림

공제조합은 “무슨 업무”를 하나요?

- 자본금 확인서 발급**
- 문화재수리업 등 등록시 법정 자본금 증빙을 위한 자본금 확인서 발급
※ 현재 시행 중

- 보증업무**
- 입찰, 계약, 선금금, 하자보수 등 계약에 따른 각종 보증증권을 발급

- 융자업무**
- 경영안정, 공사자재 등 시중 융자 이자율에 비해 저렴한 이율로 융자진행

- 공제업무(손해보험)**
- 각종 사고로부터 조합원의 피해를 보상하며 시중 보험사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
- 근로자재해공제(보험), 영업배상책임공제(보험), 단체상해공제(보험) 등

- » **추진배경**
건설분야*, 건축분야**, 운송분야*** 등은 각 산업별로 해당 공제 조합이 존재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보증 및 보험증권을 발급함
- 문화재수리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서울보증보험에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증증권을 발행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요율 비교					
기관명		입찰보증	계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업 종 별 공제조합	요율	0.01~0.04	0.13~0.55	0.20~0.90	0.11~0.50
	평균요율%(B)	0.025	0.34	0.55	0.305
서울보증보험(A)		0.142	1.717	2.054	0.696
A/B		5.7배	5.1배	3.7배	2.3배

- 산업 각분야 공제조합은, 사업자가 생산한 부가가치가 해당 산업분야로 환류되도록 하여, 제도개선·공동 편익의 생산 등 산업활성화가 가능하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함
- 문화재수리산업분야 공제조합의 부재는, 산업 환류의 매개체가 없어, 생산한 부가가치가 환류되지 않고 아울러, 타산업의 손실이 전가*되고 있음.

* 보증증권 발행을 위해 불가피 타 산업영역 공제조합인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한 문화재수리사업등의 사업자의 경우, 본인에게 맞지 않는 위험군에 속하게 되어, 높은 보증수수료와 보험(공제)료를 부담, 타산업군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게 떠안게 됨.

» 추진현황	
2022. 2.	공제규정 문화재청 및 금융위원회 승인요청 - 문화재수리법에 따라 공제규정 승인 이후 사업 개시 가능
2022. 2. ~ 6.	전산시스템 개발 사 업무협의
2022. 3. ~ 4.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공제조합의 업무범위 확장
2022. 7.	전산시스템 사 개발 *2023. 2. 개발 완료 예정
2022. 7 ~ 현재	공제조합 실무조직 확립 중

공제조합
안내

공제조합 및 보험사 차이

문화재수리협회 공제조합		일반 보험사
사업목적	문화재수리 등 사업자의 영리추구	보험사의 이윤추구
관계법령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보험업 법
감독기관	문화재청	금융감독당국
가입대상	문화재수리 등 관련 사업자	불특정 다수
※ 일반보험사는 가입대상이 광범위하여 공동체 의식 없음		
출자	조합원	주주
출자금	최소 10만원 (조합 탈퇴시 전액 환불)	-
각종 보험	단체보험으로 일반 보험사 대비 저렴하게 이용 가능	각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며 공제조합 대비 보험료가 높음

※ 공제조합 가입시 혜택

- 보증서 발급 시 시중보험사 대비 2~5배 저렴하게 이용 가능
- 당기순이익 발생 시 조합원에 경제적 혜택 발생
- 근로자재해보험, 상해보험 등을 단체보험을 통해 저렴하게 이용 가능

문화재수리 회원리스트

2022년 7월 기준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서울특별시	(주)새한티엠씨	02-723-9404	보수단청업
	(주)벌터건축사사무소	02-561-7133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주)현창문화재기술단	02-3665-8005	문화재감리업
	라운인 주식회사	02-3665-6658	보수단청업
	원택건설(주)	02-498-5471	보수단청업, 조경업
	희우건설(주)	02-3436-0722	보수단청업
	(주)간도	02-2135-5466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토형산업	02-325-6733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친강건설	02-2135-5922	보수단청업
	주식회사 담원문화유산	02-485-0709	보존과학업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02-534-1471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주)그룹이십일	02-588-2021	조경업
	진수종합건설 주식회사	02-577-9371	보수단청업
	세림산업(주)	02-6332-7784	보수단청업
	(주)예술디자인건축사사무소	02-467-4830	문화재감리업
	(주)경복영건	02-389-6909	문화재감리업
	(주)천지인조경기술사 건축사사무소	02-532-5777	조경업
	(주)연경당건축사사무소	02-319-1005	문화재실측설계업
	조선건축사사무소	02-3675-7963	문화재실측설계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경기도	(주)현영종합건설	031-424-7666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시공인건축사사무소	070-8818-2413	문화재감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주)문화재수리연구소	031-971-8342	조경업
	주식회사 가원조경	02-2617-8885	조경업
	선혜종합건설(주)	031-562-9400	보수단청업
	주식회사 송림	031-591-3904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식회사 광창건설	031-556-5671	보수단청업
	소나무종합건설(주)	031-707-3354	보수단청업, 조경업
	다인종합건설(주)	031-722-0363	보수단청업
	(주)고택	031-415-5503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연가드	031-674-8379	보존과학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경기도	성림종합건설(주)	031-381-7001	보수단청업
	(주)서원	031-773-6992	보수단청업
	진성주식회사	031-884-8971	보수단청업
	대현주식회사	031-947-9476	보수단청업
	금세기종합건설(주)	031-225-0494	보수단청업
	그린종합조경	031-354-1760	조경업
	(주)한양고건축	031-912-7852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한누리종합건설	02-3159-1531	보수단청업
	(주)함께	031-241-8983	보수단청업, 조경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강원도	(주)고재	033-645-0113	보수단청업
	나우건설주식회사	033-642-9140	보수단청업
	삼도문화재 주식회사	033-648-8234	보수단청업
	(주)광야	033-636-0198	보수단청업
	성일문화재(주)	033-575-8091	보수단청업
	신진종합건설(주)	033-747-4381	보수단청업
	(주)우리문화	033-742-4803	보수단청업
	주식회사 기림건축사사무소	033-747-6390	문화재감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주)이음건축사사무소	033-748-7516	문화재실측설계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인천광역시	(주)고진티앤씨	032-934-5554	보수단청업
	송림종합건설(주)	032-555-0487	보수단청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충청남도	명헌건설(주)	041-856-5196	보수단청업, 조경업
	방림조경건설(주)	041-854-3657	조경업
	이상건축문화주식회사	041-852-9702	보수단청업
	세운 주식회사	041-857-0134	조경업
	(주)우진토건	041-858-0470	보수단청업
	(주)세계유산연구원	070-8277-4171	보존과학업
	주식회사 다산건설	041-735-8420	보수단청업

문화재수리 회원리스트

2022년 7월 기준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충청남도	(주)와이엠종합건설	041-734-7734	보수단청업
	성진토건(주)	041-837-1132	보수단청업
	(주)삼장	041-837-0310	조경업
	설웅 주식회사	041-833-0489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식회사 미래건축사사무소	041-837-1470	문화재실축설계업
	(주)대흥환경엔지니어링	041-833-2221	보수단청업, 조경업
	화경조경(주)	070-8881-4635	조경업
	(주)춘추건축사사무소	041-665-7472	문화재실축설계업
	(주)백마종합건설	041-688-3038	보수단청업
	춘추문화재수리기술단	041-665-7472	문화재감리업
	(주)성지	041-952-0964	보수단청업
	가산종합건설(주)	041-549-3226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지유산업개발	070-7699-7333	보수단청업
	대한조경건설 주식회사	041-331-0483	조경업
	성원건설(주)	041-334-7151	보수단청업
	예은이엔지(주)	041-334-1118	보수단청업
	(주)사라문화재	010-5407-4864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아름터건축사사무소	041-567-8570	문화재실축설계업
	(주)고탑조경	041-563-0489	조경업
	주식회사 한국문화재기술원	041-688-9555	보수단청업
	(주)고택	041-631-4226	보수단청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대전광역시	전아건설(주)	042-484-4758	보수단청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충청북도	서도건설주식회사	041-856-5196	보수단청업
	(주)성익	041-854-3657	보수단청업
	가람문화재 주식회사	041-852-9702	보수단청업, 문화재감리업
	원창건설(주)	041-857-0134	보수단청업
	수아건설주식회사	041-858-0470	보수단청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대구광역시	부운건축사사무소	053-421-6996	문화재실축설계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경상북도	(주)유신	054-745-0192	보수단청업
	(주)한운문화재수리	054-742-1124	보수단청업
	기룡건설(주)	054-773-7222	보수단청업, 조경업
	에이제엔지니어링(주)	054-774-9388	보수단청업
	서진건설(주)	054-744-7701	보수단청업
	(주)태향건설	054-741-1310	보수단청업
	아람문화재(주)	054-745-3444	보수단청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주)송천문화	054-941-1638	보수단청업
	(주)태림건축	053-287-0311	보수단청업
	(주)동천	054-955-4406	조경업
	(주)경승종합건설	054-954-9288	조경업
	(주)넥스트엔파트너스	054-910-9353	보수단청업
	(주)송백보존테크	054-741-7784	보존과학업
	(주)일토종합건설	054-555-1141	보수단청업
	(주)대성문화재	054-554-3905	보수단청업
	(주)고가	054-674-3567	보수단청업
	(주)보성	070-7521-1317	보수단청업
	(주)석경	054-672-7701	보수단청업
	(주)금송	054-536-6614	보수단청업
	(주)미주건설	054-932-0434	보수단청업
	(주)동헌	054-933-0056	보수단청업
	(주)남성	054-931-3272	조경업
	동신건설(주)	054-858-5519	보수단청업
	세방건설(주)	054-859-3271	보수단청업
	(주)신화건설	054-859-0822	보수단청업
	(주)선재	054-843-7878	보수단청업
	동남건설(주)	054-858-5059	보수단청업
경상남도	오원문화유산	054-856-8270	보존과학업
	(주)송원	054-842-6677	보수단청업
	(주) 이음	070-4115-4453	보수단청업
	(주)다경	054-843-6902	보수단청업
	(주)우안건설산업	054-734-6507	보수단청업
	(주)구룡건설	010-2992-3139	보수단청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경상북도	영동건설(주)	054-634-5550	보수단청업
	(주)창신종합건설	054-635-5536	보수단청업
	태창종합건설(주)	054-632-9646	보수단청업
	(주)양백	054-636-1239	보수단청업
	(주)가운	054-336-3709	보수단청업
	(주)서영문화재	054-337-3367	보수단청업
	(주)경보	054-652-2000	보수단청업
	(주)영건문화	054-654-6628	보수단청업
	(주)정우	054-652-2570	보수단청업
	(주)지전건설	054-373-8973	보수단청업
	(주)고경	054-373-2600	보수단청업
	(주)세왕종합건설	054-371-3235	보수단청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경상남도	남영종합건설(주)	055-573-1664	보수단청업
	주식회사 인택건설	055-943-6481	보수단청업
	(주)송암토건	055-674-7197	보수단청업
	주식회사 창성문화재	055-672-9268	보수단청업
	화성종합문화재(주)	055-333-2358	보수단청업
	(주)소요	055-325-5911	보수단청업
	흥기종합건설 (주)	055-329-2597	보수단청업
	대호전통문화(주)	055-332-4171	보수단청업
	(주)백호종합건설	055-355-7222	보수단청업
	주식회사 토우	055-835-3833	조경업
	(주)소아원	055-832-3838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해인문화재	055-962-7468	보수단청업
	금종종합건설주식회사	055-972-6670	보수단청업
	금명종합건설(주)	055-974-0804	보수단청업
	주식회사 예숲	055-383-4775	조경업
	(주)서광	055-573-0310	보수단청업
	(주)옛터건축사사무소	055-763-5050	문화재실축설계업
	(주)흥인건설	055-744-7745	보수단청업
	주식회사 고영문화재	055-521-5505	보수단청업
	주식회사 두영문화재보존	055-532-0651	보존과학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경상남도	(주)현창종합건축사사무소	055-297-6201	문화재실축설계업
	주식회사 한결문화재	055-583-1288	보수단청업
	주식회사 청암문화재	055-584-5998	보수단청업
	주식회사도원아텍	055-931-9621	보수단청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전라남도	주식회사 거림종합건설	061-375-2090	보수단청업
	(주)진영	061-433-6508	보수단청업
	다보종합건설(주)	061-336-1153	보수단청업, 조경업
	화성건설(주)	061-334-2526	보수단청업
	주식회사 대륜건설	061-335-5838	보수단청업
	고구려 주식회사	061-381-7580	보수단청업
	(주)대도종합개발	010-2620-9700	조경업
	주식회사 두물문화재	061-381-3204	보수단청업
	이도건설산업 주식회사	061-751-3032	보수단청업
	송도건설(주)	061-755-7623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우리중건	061-727-0456	보수단청업
	우보건설(주)	061-275-8169	보수단청업
	대호종합건설주식회사	061-864-0660	보수단청업
	태청건설(주)	061-535-7784	보수단청업
	(주)삼진건축사사무소	061-371-1108	문화재실축설계업, 문화재감리업
	(주)협진개발	061-373-3663	보수단청업
전라북도	(주)영주동천	061-374-1529	조경업
	(주)인스나인	061-373-9922	보존과학업
	주식회사 한들	061-374-2001	보수단청업, 조경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전라북도	(주)영화문화재	063-564-0345	보수단청업
	(주) 장청	063-544-0077	보수단청업
	(유)남전종합건설	063-632-7320	보수단청업
	(주)동강종합건설	063-625-3103	보수단청업
	(유)금경종합건설	063-247-7510	보수단청업
	(주)진수종합건설	063-855-1310	보수단청업
	예담문화재(주)	070-8849-7601	보존과학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전라북도	(주)조양	063-251-3771	보수단청업
	신평문화재주식회사	063-225-0806	문화재감리업
	주식회사 한백건설	063-211-9339	보수단청업
	(주)거림문화재	070-4265-0815	보존과학업
	(주)문화재종합건설	063-221-7515	보수단청업
	(주)토울	063-228-6730	보수단청업
	주식회사 도시건축사사무소	063-714-3211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해전건설(주)	063-228-0150	보수단청업
	(주)상락문화재수리	063-535-9913	보수단청업
	(주)예원종합건설	063-571-0403	보수단청업

지역	업체명	전화번호	업종
제주도	(주)동해건설	064-732-1607	보수단청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기덕종합건설 주식회사	064-744-2800	보수단청업, 조경업
	(주)동인종합건설	064-733-1609	보수단청업, 식물보호업
	삼영건설(주)	064-764-0488	보수단청업, 조경업
	대원종합건설(주)	064-712-0003	보수단청업
	유상건설주식회사	064-711-9046	조경업
	태이재 주식회사	064-743-0227	보수단청업
	청담원 주식회사	064-752-3201	조경업
	(주)탈라문화재개발	064-733-0090	석공사업

문화재수리업자등 지역별 등록현황

2022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업체수)

지역	종합 문화재 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									문화재 실측 설계업	문화재 감리업	계
	보수 단청업	조경업	보존 과학업	식물 보호	단청 공사업	목 공사업	석 공사업	반와 공사업	미장 공사업	온돌 공사업			
서울	19	13	10	-	1	1	-	-	-	-	10	11	65
부산	-	-	-	2	2	-	-	1	-	-	-	-	5
대구	-	3	-	-	-	-	-	-	-	-	1	-	4
인천	4	-	-	-	-	-	-	-	-	-	-	-	4
광주	-	-	-	-	-	-	-	-	-	-	1	-	1
대전	1	1	-	-	-	-	-	-	-	-	-	-	2
울산	-	-	-	-	-	-	-	-	-	-	-	-	0
세종	-	-	-	-	-	-	-	-	-	-	-	-	0
경기	27	13	6	5	1	-	2	-	1	-	11	6	72
강원	14	-	3	6	-	-	-	-	-	-	3	2	28
충북	16	-	3	2	-	-	-	-	-	-	3	3	27
충남	36	20	9	3	-	-	1	-	-	-	8	6	83
전북	26	1	8	2	1	1	-	-	-	-	6	5	50
전남	29	7	10	14	1	-	-	-	-	-	7	7	75
경북	72	17	10	10	-	-	-	-	-	-	19	11	139
경남	28	3	5	5	1	-	-	-	-	-	5	4	51
제주	7	5	1	15	-	-	1	-	-	-	1	-	30
합계	278	83	67	64	6	2	3	1	1	0	75	55	635

회원가입 안내

회원의 구분

정회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
준회원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관련기술종사자
특별회원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수리관련 전문가 및 관심이 있는 자

회원혜택

혜택구분	회원사	비회원사
G2B (조달청 나라장터) 자격심사 DB자료(실적 및 경영상태) 정보연계	자동정보연계	해당사항없음
문화재수리 업종실적관리시스템 통상회비 요율	- 요율 0.1% 적용	- 요율 0.2% 적용
자격심사용 실적 증명서 수수료	- 무료 - 온라인 발급	- 건당 5,000원 - 온라인 발급 불가능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발급 수수료	- 무료 - 온라인 발급	- 건당 5,000원 - 온라인 발급 불가능
NICE디앤비 신용평가 수수료	할인	해당사항없음
협회 간행물 구독비	무료	간행물 별 비용발생
협회 문화재수리종사자 교육수강비	무료	교육 별 비용발생

회비

구분	업종	입회비	연회비
정회원	종합문화재수리업	700만원	100만원
	전문문화재수리업		
	문화재 실측·설계업	350만원	50만원
	문화재 감리업		
준회원	-	10만원	5만원
* 납부계좌 : 국민은행 213601-04-177006 문화재수리협회			

※ 회비 안내

- 입회비 : 가입신청서 제출 후 회비 입금

- 연회비 : 가입신청서 제출 후 회비 입금

※ 가입신청 제출 이후 입회비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어야 정회원 가입처리가 진행됩니다.

